

WEBVTT

00:00:10.094 --> 00:00:11.620

안녕하세요? 여러분.

00:00:11.720 --> 00:00:13.829

여러분과 함께 하는
스마트 상근 쌤입니다.

00:00:13.929 --> 00:00:17.054

우리가 앞서 1, 2, 3강에서는
학생부 관리에서

00:00:17.154 --> 00:00:20.321

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.
기억나시죠?

00:00:20.421 --> 00:00:22.856

확장, 스토리가 있는
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

00:00:22.956 --> 00:00:26.394

확장과 기록이 필요하다고
1강에서 말씀드렸고요.

00:00:26.494 --> 00:00:32.885

2강에서는 학중에서 가장 강한 친구가
진로 선택을 일찍한 친구다.

00:00:32.985 --> 00:00:36.540

진로 선택을 빨리 할 경우에는
스토리 라인 짜기가 쉽고요.

00:00:36.640 --> 00:00:41.195

교내 활동을 할 때 그 진로에
맞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

00:00:41.295 --> 00:00:44.885

전공 적합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
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

00:00:44.985 --> 00:00:49.546

그리고 바로 앞 3강에서는
학생부 종합 전형.

00:00:49.646 --> 00:00:52.813

교내 활동과 스펙이라는 게 필요하지만

00:00:52.913 --> 00:00:56.683

그 기본 베이스는 교과라고
이야기를 했습니다.

00:00:56.783 --> 00:01:00.450

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
강의는 보시는 것처럼

00:01:00.550 --> 00:01:03.878

스토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
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

00:01:03.978 --> 00:01:06.866
이야기를 할 겁니다.

00:01:06.966 --> 00:01:10.212
줄여서 이야기하면
창체활동이라고 많이 하죠.

00:01:10.312 --> 00:01:12.784
여러분의 교내 활동의
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,

00:01:12.884 --> 00:01:15.924
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
창의적 체험 활동.

00:01:16.024 --> 00:01:19.342
스토리에 맞게 하나하나
어떻게 채워 나갈지

00:01:19.442 --> 00:01:23.760
저와 함께 이번 시간을 통해서
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1:23.860 --> 00:01:27.849
창의적 체험 활동, 보통 이렇게
네 가지를 이야기하죠.

00:01:27.949 --> 00:01:31.909
자율 활동, 동아리 활동,
봉사 활동, 진로 활동.

00:01:32.009 --> 00:01:33.304
이 네 가지 영역.

00:01:33.404 --> 00:01:36.628
보통 자동봉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

00:01:36.728 --> 00:01:41.269
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
많이 듣게 될 글자고요.

00:01:41.369 --> 00:01:45.353
그리고 고1이라면 지금 많이
듣고 있는 글자일 겁니다.

00:01:45.453 --> 00:01:49.578
이 자동봉진에서 대표되는
창의적 체험 활동.

00:01:49.678 --> 00:01:51.838
굉장히 중요합니다.

00:01:51.938 --> 00:01:57.712
여러분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
어떻게 스토리 있게 짜나갈지,

00:01:57.812 --> 00:02:01.495
저와 함께 하나씩 하나씩
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2:01.595 --> 00:02:07.633

첫 번째, 자동봉진 중에서
첫 번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

00:02:07.733 --> 00:02:10.272
자율 활동 보도록 할까요?

00:02:10.372 --> 00:02:12.720
자율 활동은 기본적으로
분량이 많습니다.

00:02:12.820 --> 00:02:18.569
1000자 정도나 되는 분량을
가지고 있는 게 자율 활동입니다.

00:02:18.669 --> 00:02:22.411
주로 여러분의 학생부에
기록되게 될 자율 활동은

00:02:22.511 --> 00:02:26.751
학교 행사와 반 행사,
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00:02:26.851 --> 00:02:31.095
학교에서 하는 활동과 반에서
진행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.

00:02:31.195 --> 00:02:34.444
그 내용에 대해서
학생부에 기재되는 것.

00:02:34.544 --> 00:02:37.963
그거를 우리는
자율 활동이라고 합니다.

00:02:38.063 --> 00:02:44.512
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맨 처음에
나오는 활동이 자율 활동입니다.

00:02:44.612 --> 00:02:45.849
양도 많아요.

00:02:45.949 --> 00:02:49.453
그리고 학교 행사,
반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?

00:02:49.553 --> 00:02:55.421
문제는 쓰잘데기 없는 기록이
대다수라는 데 있습니다.

00:02:55.521 --> 00:03:00.629
양은 많은데 실제 건질
만한 내용이 없다.

00:03:00.729 --> 00:03:04.113
이게 자율 활동의 핵심이라고
할 수 있습니다.

00:03:04.213 --> 00:03:07.352
보통 자율 활동은 보세요.

00:03:07.452 --> 00:03:10.702

1학년이라면 학생부를
출력해서 봐 보세요.

00:03:10.802 --> 00:03:13.848
자율 활동에 어떠한 내용이
기재되어있는지 보시면,

00:03:13.948 --> 00:03:18.847
왜 이게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
내용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지

00:03:18.947 --> 00:03:21.107
답이 나올 겁니다.

00:03:21.207 --> 00:03:24.900
기본적으로 많은 학교의
자율 활동은 대부분

00:03:25.000 --> 00:03:27.706
학교 자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

00:03:27.806 --> 00:03:29.656
우리 학교는 이런 활동 합니다.

00:03:29.756 --> 00:03:33.838
우리 학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
진행하고 있습니다.

00:03:33.938 --> 00:03:38.363
우리 학교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
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
00:03:38.463 --> 00:03:43.082
이러한 점이 적혀 있는 게 바로
학생부의 자율 활동입니다.

00:03:43.182 --> 00:03:47.963
과연 대학들은 이런 자율
활동을 원할까요?

00:03:48.063 --> 00:03:53.256
학생들을 원하지 학교가 얼마큼
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

00:03:53.356 --> 00:03:56.317
학생부를 통해서 그다지
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.

00:03:56.417 --> 00:04:01.010
물론 학교가 우리 학생들을
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.

00:04:01.110 --> 00:04:04.524
물론 이 점은 각
대학들이 고려할 거고요.

00:04:04.624 --> 00:04:07.920
아마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.

00:04:08.020 --> 00:04:14.944
학생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록물에서

00:04:15.044 --> 00:04:19.346

굳이 학교의 자량을 들을
필요는 없어 보입니다.

00:04:19.446 --> 00:04:21.283

중요한 거는 뭐냐?

00:04:21.383 --> 00:04:27.125

바로 학교가 아닌 여러분, 즉
나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.

00:04:27.225 --> 00:04:30.878

학생부는 학교의
공식적인 기록입니다.

00:04:30.978 --> 00:04:32.923

학교의 자량을 하는
공간이 아니에요.

00:04:33.023 --> 00:04:37.606

바로 여러분의 스토리를
이야기하는 곳이 학생부입니다.

00:04:37.706 --> 00:04:39.233

가장 중요한 겁니다.

00:04:39.333 --> 00:04:45.309

학교가 아닌 나를 자율 활동
내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.

00:04:45.409 --> 00:04:47.535

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

00:04:47.635 --> 00:04:48.815

바로 이거죠.

00:04:48.915 --> 00:04:54.520

학교의 모습보다는 학교 행사,
혹은 학급 행사 속에서

00:04:54.620 --> 00:04:57.757

누구를 발견해야 돼요?
여러분을 발견해야 됩니다.

00:04:57.857 --> 00:05:03.165

내가 이런 학급에 혹은
학교 활동에 참여했다.

00:05:03.265 --> 00:05:05.083

이게 드러나면 안 돼요.

00:05:05.183 --> 00:05:10.130

참여 이상의 것이 자율 활동
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.

00:05:10.230 --> 00:05:15.857

기본적으로 자율 활동의 주체자는
학교와 학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

00:05:15.957 --> 00:05:20.188

왜냐하면 학급이 진행하고
학교가 만들어놓은 행사라든가

00:05:20.288 --> 00:05:23.115
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
바로 자율 활동입니다.

00:05:23.215 --> 00:05:28.126
그런데 이 학급과 학교가
만들어놓은 틀 안에서

00:05:28.226 --> 00:05:33.767
누구나 다 똑같은 Ctrl+c와 Ctrl+v로
붙여진 자율 활동이 아니라,

00:05:33.867 --> 00:05:37.252
똑같은 행사지만 그 행사 속에서
여러분이 발견한 모습들.

00:05:37.352 --> 00:05:40.917
행사의 동기, 행사의 진행
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,

00:05:41.017 --> 00:05:44.107
그리고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
여러분이 느끼고 배운 점.

00:05:44.207 --> 00:05:46.645
그리고 그로 인한 성장 포인트.

00:05:46.745 --> 00:05:51.612
이런 것들이 자율 활동 속에
녹아들어 있어야 됩니다.

00:05:51.712 --> 00:05:56.178
비록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틀 자체는

00:05:56.278 --> 00:05:59.566
학교와 학급이 만들어놓았지만,

00:05:59.666 --> 00:06:04.407
그 내용을 채우는 거는 바로
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

00:06:04.507 --> 00:06:10.672
기본적으로 많은 학교의 자율 활동은
계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

00:06:10.772 --> 00:06:13.697
뭔가 활동을 많이 한 것 같고요.

00:06:13.797 --> 00:06:16.674
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
많은 것 같아요.

00:06:16.774 --> 00:06:19.536
왜냐하면 기본적으로
학교 행사가 많고

00:06:19.636 --> 00:06:23.285
학급 자체에서 행사가

많다면 기재되어있는

00:06:23.385 --> 00:06:28.318

자율 활동의 양 자체는
많을 수밖에 없어요.

00:06:28.418 --> 00:06:31.071

하지만 중요한 거는 양이 아닙니다.

00:06:31.171 --> 00:06:34.674

물론 양이 중요하지
않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.

00:06:34.774 --> 00:06:36.280

양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.

00:06:36.380 --> 00:06:40.174

하지만 질적으로 굉장히
좋아지고 있는지,

00:06:40.274 --> 00:06:42.929

그리고 그 안을 봤을 때,

00:06:43.029 --> 00:06:45.540

여러분이 느낀 점이 굉장히
많을 거 아닙니까?

00:06:45.640 --> 00:06:49.193

이러한 모든 것들을
봤을 때 양이라는 것보다는

00:06:49.293 --> 00:06:51.129

더 중요한 게 뭐다?
질입니다.

00:06:51.229 --> 00:06:56.208

남들과 차별화되는 여러
가지 스토리예요.

00:06:56.308 --> 00:06:59.367

한 학교에 얼마나 많은
프로그램이 많습니까?

00:06:59.467 --> 00:07:00.846

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많죠.

00:07:00.946 --> 00:07:04.500

그 참여하는 학생들의 내용은
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.

00:07:04.600 --> 00:07:08.436

그 학교 출신이면 이 정도의
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.

00:07:08.536 --> 00:07:13.268

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이 갖고
있는 자율 활동이 기재된 내용은

00:07:13.368 --> 00:07:15.134

비슷할 수밖에 없겠죠.

00:07:15.234 --> 00:07:17.056
그러면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?

00:07:17.156 --> 00:07:18.431
그렇지 않습니다.

00:07:18.531 --> 00:07:22.893
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
동일한 패턴의 기재는

00:07:22.993 --> 00:07:26.923
학교 자랑일뿐이지 여러분의 진실된
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.

00:07:27.023 --> 00:07:29.858
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
중요한 거는 뭐냐면,

00:07:29.958 --> 00:07:33.995
똑같은 활동이기는 하지만
그 안에서 차별화를 시켜야 됩니다.

00:07:34.095 --> 00:07:38.365
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
스스로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

00:07:38.465 --> 00:07:40.104
어필을 해줘야 돼요.

00:07:40.204 --> 00:07:41.853
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?

00:07:41.953 --> 00:07:44.038
학교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

00:07:44.138 --> 00:07:49.407
그 프로그램, 그 행사에 대해서
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

00:07:49.507 --> 00:07:53.417
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부에
기재된다는 이유만으로,

00:07:53.517 --> 00:07:54.905
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

00:07:55.005 --> 00:07:58.744
그거는 학생부 장수가
늘어나는 것 이상의 내용을

00:07:58.844 --> 00:08:00.685
담아내지 않게 됩니다.

00:08:00.785 --> 00:08:02.457
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

00:08:02.557 --> 00:08:04.267
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

00:08:04.367 --> 00:08:09.229
어떻게 하면 자율 활동이,

학교 내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지만

00:08:09.329 --> 00:08:13.155

여러분만의 혹은 여러분을
차별화시킬 수 있는지

00:08:13.255 --> 00:08:15.333

알려드리도록 할게요.

00:08:15.433 --> 00:08:17.177

그 첫 번째입니다.

00:08:17.277 --> 00:08:19.786

보통 여러분이 중학교
때도 많이 했을 거예요.

00:08:19.886 --> 00:08:25.319

HR이라고, 담임 선생님과 함께
하는 일종의 반내 활동입니다.

00:08:25.419 --> 00:08:29.581

보통 HR 시간에는 학급
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.

00:08:29.681 --> 00:08:34.171

여러 가지 여러분의 성장과 관련된
교육 활동이 많이 이루어집니다.

00:08:34.271 --> 00:08:36.783

금연 교육도 이루어질 수
있고 청소년 교육,

00:08:36.883 --> 00:08:40.245

휴대폰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?
이런 교육.

00:08:40.345 --> 00:08:44.523

그리고 성교육, 여러 가지
교육들이 HR 시간을 통해서

00:08:44.623 --> 00:08:46.031

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

00:08:46.131 --> 00:08:48.741

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
이런 내용에 대한 문구가

00:08:48.841 --> 00:08:50.575

자율 활동에 들어갈 겁니다.

00:08:50.675 --> 00:08:55.547

이 학생은 금연 교육,
2017 몇 월 며칠에 참여하여

00:08:55.647 --> 00:08:57.741

금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다.

00:08:57.841 --> 00:08:59.396

이런 내용이 빠곡히 들어갈 거예요.

00:08:59.496 --> 00:09:01.356

그런데 그 교육의 내용이
중요한 게 아니죠.

00:09:01.456 --> 00:09:05.160

그 교육의 내용은 학교가
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.

00:09:05.260 --> 00:09:07.996

그 내용의 많고 적음은
여러분의 입시 결과에

00:09:08.096 --> 00:09:10.451

이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00:09:10.551 --> 00:09:13.076

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
교육 활동을 통해서

00:09:13.176 --> 00:09:18.157

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,
그리고 여러분의 역할 자체가

00:09:18.257 --> 00:09:22.829

얼마나 주도적이고
적극적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.

00:09:22.929 --> 00:09:27.970

그러기 위해서 HR 시간에
벌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

00:09:28.070 --> 00:09:31.482

단순히 보고 듣는
수동적인 입장이기보다는

00:09:31.582 --> 00:09:35.971

그 교육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
주체적인 학생이 돼야 됩니다.

00:09:36.071 --> 00:09:41.266

제가 드리는 팁, 바로
발표를 활용하자는 겁니다.

00:09:41.366 --> 00:09:46.253

HR 시간은 보통 1시간
내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
00:09:46.353 --> 00:09:49.026

대개의 경우는 30분
정도가 진행이 되고 나서

00:09:49.126 --> 00:09:53.327

나머지 시간은 담임 선생님의
자율적으로 시간으로 조직이 돼요.

00:09:53.427 --> 00:09:58.016

대부분의 학생들이 이
시간을 뭐로 이용할까요?

00:09:58.116 --> 00:10:00.936

자율 학습이라든가
친구들과의 잡담이라든가

00:10:01.036 --> 00:10:04.219

독서라든가 이런 거로
쓰는 경우가 많아요.

00:10:04.319 --> 00:10:06.751

그런 활동이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.

00:10:06.851 --> 00:10:12.198

하지만 기왕이면 자율 활동의
기재되는 교육이라면,

00:10:12.298 --> 00:10:15.642

남들과 똑같은 기록보다는

00:10:15.742 --> 00:10:18.907

내가 능동적으로 그
안에서 뭔가 해내는

00:10:19.007 --> 00:10:21.637

그런 활동이 기재되는 게
훨씬 더 좋겠죠.

00:10:21.737 --> 00:10:25.883

그래서 이런 교육 활동에서 여러분이
능동적, 주체적이기 위해서는

00:10:25.983 --> 00:10:29.700

발표를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.

00:10:29.800 --> 00:10:34.801

제가 앞 시간에 교과에 대해서
이야기할 때 발표 이야기했었죠.

00:10:34.901 --> 00:10:38.844

교내에 있는 모든 활동의
내용을 수업 시간에 발표해라.

00:10:38.944 --> 00:10:40.102

마찬가지입니다.

00:10:40.202 --> 00:10:46.084

담임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
이 HR 시간에 발표를 하셔야 돼요.

00:10:46.184 --> 00:10:48.475

예를 들어 줄게요.

00:10:48.575 --> 00:10:53.140

발표할 때 특히 중요한 점은
여러분이 하고 싶은 진로,

00:10:53.240 --> 00:10:57.097

즉 여러분이 진학하고 싶은
학과, 한마디로 전공이죠.

00:10:57.197 --> 00:11:01.783

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의
주제로 삼으셔야 돼요.

00:11:01.883 --> 00:11:05.553

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연
교육을 예로 들어 볼게요.

00:11:05.653 --> 00:11:08.163

보통 금연 교육은 담배를
피지 말라는 거죠.

00:11:08.263 --> 00:11:11.812

하지만 화학과를
진학하고 싶은 학생,

00:11:11.912 --> 00:11:16.320

화학 관련, 혹은 화장품 회사라든가

00:11:16.420 --> 00:11:20.750

이와 비슷한 이런 계통 쪽으로
가고 싶은 학생의 경우는

00:11:20.850 --> 00:11:24.477

금연 교육 내에서 담배라는
포인트를 집어내세요.

00:11:24.577 --> 00:11:27.841

특히 담배의 주요 성분인
니코틴에 집중해봅시다.

00:11:27.941 --> 00:11:30.802

그래서 이 금연 교육이
끝난 다음에,

00:11:30.902 --> 00:11:34.808

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 성분에
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.

00:11:34.908 --> 00:11:38.074

이 발표라는 게
대학생이라든가 대학원생,

00:11:38.174 --> 00:11:41.482

교수님들이 하는 TV에서 보는
전문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죠.

00:11:41.582 --> 00:11:45.076

고등학교 수준의 정도,
화학 시간이라든가

00:11:45.176 --> 00:11:46.635

기타 교과 시간 있잖아요?

00:11:46.735 --> 00:11:50.396

거기서 배웠던 지식, 혹은 여러분이
책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?

00:11:50.496 --> 00:11:55.446

혹은 전공과 관련돼서 화학
계통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

00:11:55.546 --> 00:11:58.703

니코틴에 대한 전문
지식이 많거든요.

00:11:58.803 --> 00:12:02.755

그러면 읽고 나서 이것에
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.

00:12:02.855 --> 00:12:03.979

길지 않습니다.

00:12:04.079 --> 00:12:07.343

고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발표
활동은 대개 5분 안이에요.

00:12:07.443 --> 00:12:09.594

이런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

00:12:09.694 --> 00:12:12.500

전공과 관련된 내용을
발표하는 겁니다.

00:12:12.600 --> 00:12:17.339

만약에 자기가 경영 계통 쪽,
즉 상경 계열 쪽에 가고 싶어요.

00:12:17.439 --> 00:12:19.560

금연 교육, 어떻게
이용하시겠습니까?

00:12:19.660 --> 00:12:21.263

금연은 담배 피지 말라는 거죠.

00:12:21.363 --> 00:12:24.231

정부에 금연 정책에 대해서
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

00:12:24.331 --> 00:12:28.642

담배값을 올린다는가, 강력한
공공에 대한 규제.

00:12:28.742 --> 00:12:30.950

흡연에 대한 공공
규제를 이야기하면서

00:12:31.050 --> 00:12:35.414

금연이라는 게 사회 전반에
끼치는 경제적 효과 있죠?

00:12:35.514 --> 00:12:38.476

경제적 효과에 대해서
다뤄보는 겁니다.

00:12:38.576 --> 00:12:41.843

이런 경제적 효과라는 것들은 주로
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잖아요.

00:12:41.943 --> 00:12:43.623

이런 내용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.

00:12:43.723 --> 00:12:46.484

이런 내용을 검색해서
기사 요약이라든가

00:12:46.584 --> 00:12:50.990

관련 서적의 내용을 알려주면
그것도 일종의 발표예요.

00:12:51.090 --> 00:12:54.777

더군다나 이거는 전공과 밀접한
내용의 발표이기 때문에,

00:12:54.877 --> 00:13:01.424

전공 적합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
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00:13:01.524 --> 00:13:04.130

그냥 지나가버리는
HR 시간이지만,

00:13:04.230 --> 00:13:08.489

여러분의 전공과 포인트를
집어내서 발표를 한다.

00:13:08.589 --> 00:13:12.883

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자율 활동이
기재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

00:13:12.983 --> 00:13:16.036

남들은 단순히 금연 교육에
참여했음, 이렇게 적혀 있지만

00:13:16.136 --> 00:13:17.589

여러분은 학생부에 이렇게 적히겠죠.

00:13:17.689 --> 00:13:22.354

금연 교육에 참여하여 니코틴
함유량에 관련된 내용을

00:13:22.454 --> 00:13:24.905

학생들 앞에서 발표하였음.

00:13:25.005 --> 00:13:29.840

금연 교육 시간 동안에
금연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

00:13:29.940 --> 00:13:32.613

5분 동안 학생들에게 발표하였음.

00:13:32.713 --> 00:13:34.319

얼마나 차별적인 내용입니까?

00:13:34.419 --> 00:13:37.192

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

00:13:37.292 --> 00:13:40.034

스토리가 있는 학생부가
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.

00:13:40.134 --> 00:13:45.270

여러분의 활동은 다음 단계로
확장되기가 쉽습니다.

00:13:45.370 --> 00:13:51.382

그냥 보내는 교육 시간,
이런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

00:13:51.482 --> 00:13:55.302

미리 차근차근 발표
내용을 준비하시면,

00:13:55.402 --> 00:13:59.802

남들과는 차별화된 자율 활동을
기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.

00:13:59.902 --> 00:14:01.585

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

00:14:01.685 --> 00:14:04.194

그래서 여러분은 이러
이러한 교육을 통해서

00:14:04.294 --> 00:14:06.781

반드시 전공과 연관시키는 게 좋아요.

00:14:06.881 --> 00:14:09.795

단순한 금연 교육이라고 해서
금연에 대한 것이 아니라,

00:14:09.895 --> 00:14:12.422

자기의 전공과, 자기가
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.

00:14:12.522 --> 00:14:14.715

그런 일과 연결시키면 됩니다.

00:14:14.815 --> 00:14:16.250

연결시키는 거는 쉬워요.

00:14:16.350 --> 00:14:20.247

연결시켜서 발표를 하게
되면 진짜 남들과 차별화되는

00:14:20.347 --> 00:14:23.986

그런 내용을 학생부에
차곡차곡 쌓게 됩니다.

00:14:24.086 --> 00:14:27.966

이러한 것들이 쌓이다보면
여러분의 학생부는

00:14:28.066 --> 00:14:32.995

스토리를 찾게 되고 남들과는
다른 뛰어난 학생부가 돼요.

00:14:33.095 --> 00:14:35.868

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
자기 소개서 쓸 때도

00:14:35.968 --> 00:14:38.999

연결고리로서의
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.

00:14:39.099 --> 00:14:40.625

두 번째입니다.

00:14:40.725 --> 00:14:44.507

보통 많은 학생들은 커다란
활동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.

00:14:44.607 --> 00:14:47.794
그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
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.

00:14:47.894 --> 00:14:51.293
큰 활동 자체는 임팩트가 크죠.

00:14:51.393 --> 00:14:55.120
그런데 이러한 임팩트가
큰 거는 언제 커집니까?

00:14:55.220 --> 00:14:57.123
성공했을 때 커지는 겁니다.

00:14:57.223 --> 00:15:01.647
그런데 커다란 활동은
임팩트가 크기는 하지만,

00:15:01.747 --> 00:15:04.783
성공 가능성은 굉장히
낮을 수밖에 없습니다.

00:15:04.883 --> 00:15:09.223
물론 학중이라는 전형 자체가
과정을 굉장히 중시여기지만

00:15:09.323 --> 00:15:13.025
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.

00:15:13.125 --> 00:15:21.182
그래서 큰 활동도 좋지만 중간 중간에
작은 활동을 해나가는 것.

00:15:21.282 --> 00:15:24.146
그리고 작은 활동이기
때문에 큰 활동에 비해서

00:15:24.246 --> 00:15:27.744
더 성공할 가능성도
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

00:15:27.844 --> 00:15:32.410
성공이라는 달콤한 결실을 따게
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.

00:15:32.510 --> 00:15:36.763
작은 활동, 큰 활동에 비해서 진행
과정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.

00:15:36.863 --> 00:15:39.620
그리고 주도적으로 해나갈
가능성도 많아요.

00:15:39.720 --> 00:15:42.153
왜냐하면 작은 역할이기
때문에, 작은 활동이기 때문에

00:15:42.253 --> 00:15:46.876

여러분이 동아리의 장이라든가 혹은
학급 회장이 아니라 할지라도

00:15:46.976 --> 00:15:50.279
충분히 작은 활동을 기획할 수 있고

00:15:50.379 --> 00:15:52.863
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
나갈 수 있게 됩니다.

00:15:52.963 --> 00:15:55.237
그리고 성과내기도 굉장히 편하죠.

00:15:55.337 --> 00:15:59.648
또한 작은 활동이기 때문에
장기간 프로젝트가 아니에요.

00:15:59.748 --> 00:16:01.785
단기간 프로젝트인 경우가 많습니다.

00:16:01.885 --> 00:16:03.598
결과가 금방 금방 나오게 됩니다.

00:16:03.698 --> 00:16:06.259
큰 활동 같은 경우 메리트는 크지만

00:16:06.359 --> 00:16:10.010
여기에 들어가는 투자
대비 결과를 봤을 때는,

00:16:10.110 --> 00:16:13.334
작은 활동을 많이
해서 성공을 하는 게

00:16:13.434 --> 00:16:17.538
훨씬 더 투자 대비 결과가
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00:16:17.638 --> 00:16:20.763
중요한 거는 꾸준함이 필수죠.

00:16:20.863 --> 00:16:23.646
작은 것 하나에서 성공을 봤어요.

00:16:23.746 --> 00:16:25.050
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

00:16:25.150 --> 00:16:28.391
작은 활동은 작은 활동으로써의
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.

00:16:28.491 --> 00:16:31.375
작은 활동이 큰 힘을
발휘하게 되는 경우는

00:16:31.475 --> 00:16:35.726
이런 작은 활동이 꾸준히
이어지게 되고 꾸준함의 결과,

00:16:35.826 --> 00:16:39.175
커다란 활동의 엄청난 영향을 줬을 때

00:16:39.275 --> 00:16:42.914

작은 활동의 역할이 더
커질 수밖에 없게 돼요.

00:16:43.014 --> 00:16:47.603

작은 활동은 큰 활동보다
시간의 투자 대비 결과가

00:16:47.703 --> 00:16:49.369

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

00:16:49.469 --> 00:16:51.416

대신 여기서는 반드시
뭐가 필요하냐?

00:16:51.516 --> 00:16:55.795

꾸준함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
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16:55.895 --> 00:17:00.332

작은 활동을 하는 기본적인
순서를 알려드릴게요.

00:17:00.432 --> 00:17:04.837

기본적으로 계획을
만들 필요가 있겠죠.

00:17:04.937 --> 00:17:08.334

아무리 작은 활동이라도
계획안이 필요합니다.

00:17:08.434 --> 00:17:11.968

왜냐하면 이러한 작은
활동을 기재하는

00:17:12.068 --> 00:17:14.527

자율 활동 자체를
기재하는 분은 누구냐면,

00:17:14.627 --> 00:17:16.948

바로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세요.

00:17:17.048 --> 00:17:20.212

담임 선생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
작은 계획을 이야기합니다.

00:17:20.312 --> 00:17:23.324

하지만 이것을 단순하게
말로 하기보다는

00:17:23.424 --> 00:17:27.497

명확히 문서, 즉 종이로
된 계획서를 가지고

00:17:27.597 --> 00:17:30.436

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다면
좀 더 설득력이 있게 되고

00:17:30.536 --> 00:17:33.632

진정성이 좀 더 빛을

발하게 되겠죠.

00:17:33.732 --> 00:17:35.506
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

00:17:35.606 --> 00:17:37.600
그리고 이러한
계획안을 갖고 가서

00:17:37.700 --> 00:17:39.893
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
해야 됩니다.

00:17:39.993 --> 00:17:42.432
무턱대고
선생님, 저 발표하겠습니다.

00:17:42.532 --> 00:17:43.912
이러면 당황하시겠죠.

00:17:44.012 --> 00:17:47.410
그러니까 자율 활동을 하기
전에 뭐를 해야 돼요?

00:17:47.510 --> 00:17:51.372
반드시 여러분은 담임
선생님께 계획안을 갖고 가서

00:17:51.472 --> 00:17:52.696
말씀드려야 됩니다.

00:17:52.796 --> 00:17:55.448
선생님, 저 이런 활동을
하고 싶습니다.

00:17:55.548 --> 00:17:58.036
말로 하기보다는
계획안을 보여주세요.

00:17:58.136 --> 00:18:01.590
이런 활동을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.

00:18:01.690 --> 00:18:04.514
제 결과물이 나오면 학생부에
기재해주시면 안 될까요?

00:18:04.614 --> 00:18:06.125
이렇게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

00:18:06.225 --> 00:18:12.957
이렇게 계획안까지 만들고
선생님 앞에 선 여러분을

00:18:13.057 --> 00:18:15.469
어떤 선생님이 거부하겠습니까?

00:18:15.569 --> 00:18:19.972
당연히 찬성하실 거고
오히려 칭찬하실 겁니다.

00:18:20.072 --> 00:18:23.840

일단 계획안 만드시고 이
내용을 담임 선생님께

00:18:23.940 --> 00:18:27.372
반드시 이야기를 해줄
필요가 있습니다.

00:18:27.472 --> 00:18:30.194
세 번째, 당연히 진행을
잘 해나가야겠죠.

00:18:30.294 --> 00:18:34.922
계획안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
실행이 뒷받침되지 않는

00:18:35.022 --> 00:18:36.773
자율 활동은 무의미합니다.

00:18:36.873 --> 00:18:39.126
그리고 하나하나 기록을 해야겠죠.

00:18:39.226 --> 00:18:41.699
제가 앞 시간에 기록이 얼마나
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.

00:18:41.799 --> 00:18:46.448
작은 프로젝트, 혹은
일회성 활동이라할지라도

00:18:46.548 --> 00:18:51.132
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?
그 활동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예요.

00:18:51.232 --> 00:18:54.924
이러한 기록을 해야지 우리가
이러한 활동을 하고 나서,

00:18:55.024 --> 00:18:58.455
제출하게 될 보고서가
탄탄해지게 되고

00:18:58.555 --> 00:19:00.715
그거에 대한 합리적인
근거가 됩니다.

00:19:00.815 --> 00:19:06.407
마지막은 당연히 이런 활동에
대해서 제출하는 게 좋겠죠.

00:19:06.507 --> 00:19:11.947
중요한 점은 제출할 경우에는
학기 말, 특히 학년 말.

00:19:12.047 --> 00:19:14.096
다급하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.

00:19:14.196 --> 00:19:18.435
학년 말, 학기 말은 담임
선생님들이 학생부를 기재하느라

00:19:18.535 --> 00:19:19.847

굉장히 바쁩니다.

00:19:19.947 --> 00:19:23.353

그렇기 때문에 방학에
임박해서 내기보다는

00:19:23.453 --> 00:19:26.311

여유가 있는 기말 고사 전.

00:19:26.411 --> 00:19:30.428

혹은 기말 고사 직후, 방학되기
2주 정도가 시간이 있잖아요?

00:19:30.528 --> 00:19:35.143

그 정도에 이러한 결과물의
내용을 제출하면,

00:19:35.243 --> 00:19:38.505

담임 선생님이 기재할 때 좀
더 여유를 가지기 때문에

00:19:38.605 --> 00:19:42.706

좀 더 풍부하고 여러분에
대해서 세세하게 관찰하고

00:19:42.806 --> 00:19:46.277

기록된 내용을 학생부에
기재를 해주게 될 겁니다.

00:19:46.377 --> 00:19:51.572

이 네 가지 단계, 아주 단순하지만
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

00:19:51.672 --> 00:19:53.287

1단계부터 4단계까지.

00:19:53.387 --> 00:19:54.641

계획안 만드세요.

00:19:54.741 --> 00:19:57.452

그리고 계획안을 들고 담임
선생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

00:19:57.552 --> 00:19:59.321

그리고 여러분의 의도를 밝히세요.

00:19:59.421 --> 00:20:04.136

그리고 오케이 하시면, 진행하시고
할 때마다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.

00:20:04.236 --> 00:20:06.578

그리고 나중에 이러한
기록을 정리해서

00:20:06.678 --> 00:20:09.368

학기 말에 보고서 형태를
제출하게 된다면,

00:20:09.468 --> 00:20:14.302

정말로 남들과는 다른 자율 활동이
기재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.

00:20:14.402 --> 00:20:18.275

그다음에 게시판 활용
굉장히 좋습니다.

00:20:18.375 --> 00:20:21.084

교실 뒤나 앞에는 보통
학급의 소식이라든가

00:20:21.184 --> 00:20:23.265

학교의 행사를
알려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.

00:20:23.365 --> 00:20:27.454

그 게시판은 여러분의 장소입니다.

00:20:27.554 --> 00:20:29.687

여러분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.

00:20:29.787 --> 00:20:33.510

학교 행사, 학급 행사만 붙여질
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.

00:20:33.610 --> 00:20:36.744

여러분이 하고 있는 활동에
대한 진행 과정이라든가

00:20:36.844 --> 00:20:40.371

결과물도 게시할 수가 있게 돼요.

00:20:40.471 --> 00:20:43.746

게시판은 여러분의 무대입니다.

00:20:43.846 --> 00:20:47.931

여러분의 무대인 만큼
당연히 이용하셔야겠죠.

00:20:48.031 --> 00:20:50.134

여러분에게 오픈된 장소예요.

00:20:50.234 --> 00:20:52.685

여러분이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.

00:20:52.785 --> 00:20:56.733

보고서 남깁니다, 하지만 이
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

00:20:56.833 --> 00:20:59.260

친구들과 공유하게 된다면,

00:20:59.360 --> 00:21:02.795

수업 시간에 한 발표, 혹은
HR 시간에 발표한 내용을

00:21:02.895 --> 00:21:05.492

게시판에 붙여서 공유를 하게 된다면

00:21:05.592 --> 00:21:08.509

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보시고
그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?

00:21:08.609 --> 00:21:11.852

학생 기록부에 기재할
확률이 높습니다.

00:21:11.952 --> 00:21:13.282

단순히 발표하는 게 아니라

00:21:13.382 --> 00:21:19.861

발표하고 결과물을 게시판에
붙여놓아서 친구들과 공유하였음.

00:21:19.961 --> 00:21:23.469

나눔과 배려라는
인성적인 측면에 있어

00:21:23.569 --> 00:21:27.059

여러분에게 플러스 요소가
될 수밖에 없겠죠.

00:21:27.159 --> 00:21:30.051

게시판, 무조건
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00:21:30.151 --> 00:21:32.438

선생님에게만 제출하는
보고서가 아니라

00:21:32.538 --> 00:21:35.945

여러분 친구들과 함께
공유하는 그런 결과물을

00:21:36.045 --> 00:21:37.304

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.

00:21:37.404 --> 00:21:40.813

여러분의 학생부는 남들과
굉장히 차별화되는,

00:21:40.913 --> 00:21:45.930

그런 학생부가 될 확률이
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.

00:21:46.030 --> 00:21:47.707

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

00:21:47.807 --> 00:21:51.089

활동의 결과물을
결과물로서만 두지 마세요.

00:21:51.189 --> 00:21:55.368

선생님만 볼 수 있는 결과물이
아니라 게시판에 붙여놓으세요.

00:21:55.468 --> 00:21:59.318

붙여놓으면 지나가는
친구들이 볼 수 있겠죠?

00:21:59.418 --> 00:22:02.441

그리고 교과 시간,
담임 선생님이 아니라

00:22:02.541 --> 00:22:07.422
다른 교과 선생님도 보시고 여러분에게
발표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.

00:22:07.522 --> 00:22:11.024
그럴 경우에는 자율 활동에
적혀 있는 부분이

00:22:11.124 --> 00:22:17.703
교과 세부 능력 사항, 교과세특에도
적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00:22:17.803 --> 00:22:21.111
그러다보면 여러분의 활동 하나가
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,

00:22:21.211 --> 00:22:24.335
다른 영역으로 확장되는
확률이 굉장히 높게 돼요.

00:22:24.435 --> 00:22:29.775
이를 통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
역량을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거죠.

00:22:29.875 --> 00:22:31.340
이거는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.

00:22:31.440 --> 00:22:35.363
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
남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.

00:22:35.463 --> 00:22:40.772
남들이 나의 숨겨져 있는 재능과
능력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.

00:22:40.872 --> 00:22:44.003
21세기에 적합한
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.

00:22:44.103 --> 00:22:46.159
자기만 알고 있는
능력, 필요없어요.

00:22:46.259 --> 00:22:49.426
능력이라는 거는 언제
빛을 발하게 됩니까?

00:22:49.526 --> 00:22:55.104
밖으로 나올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능력이
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.

00:22:55.204 --> 00:22:58.616
여러분 속으로 나는
잘해, 라고 해봤자

00:22:58.716 --> 00:23:01.117
이제는 그게 미덕이 아니에요.

00:23:01.217 --> 00:23:04.136
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밖으로
표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.

00:23:04.236 --> 00:23:07.712

그거는 자기 자량이 아니에요,
이거는 공유입니다.

00:23:07.812 --> 00:23:11.296

공유라는 가치를 여러분이
보여줘야 됩니다.

00:23:11.396 --> 00:23:14.885

이게 바로 21세기가
원하고 대학들이 원하는,

00:23:14.985 --> 00:23:19.840

여러분에게 원하는 역량이라는 거,
꼭 명심하기 바랍니다.

00:23:19.940 --> 00:23:23.741

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까?
개인화예요.

00:23:23.841 --> 00:23:26.570

학교 내에 있는 모든 활동 있죠.

00:23:26.670 --> 00:23:29.900

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활동,
공동체에서 벌어지는 활동들.

00:23:30.000 --> 00:23:32.609

공동체로써의 모습도 중요하지만

00:23:32.709 --> 00:23:35.969

공동체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
여러분의 차별화된 모습.

00:23:36.069 --> 00:23:38.736

즉 개인화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.

00:23:38.836 --> 00:23:41.042

개인화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.

00:23:41.142 --> 00:23:42.275

개인주의가 아니에요.

00:23:42.375 --> 00:23:46.357

전체 속에서 여러분의 독특한
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.

00:23:46.457 --> 00:23:50.198

왜냐하면 대학이 원하는 거는 학교
자랑, 학급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.

00:23:50.298 --> 00:23:54.082

학교가 마련해준 뛰어난
프로그램 내에서

00:23:54.182 --> 00:23:56.364

여러분이 어떤 모습을
보여주고 있는지

00:23:56.464 --> 00:24:01.046

활동으로서 결과물로서 과정으로서
드러내달라는 겁니다.

00:24:01.146 --> 00:24:04.037

이게 바로 대학들이
여러분의 학생부에서

00:24:04.137 --> 00:24:06.828

정말로 보고 싶은 내용이에요.

00:24:06.928 --> 00:24:09.859

학교가 아무리 주도하더라도

00:24:09.959 --> 00:24:12.861

학급의 담임 선생님이
만든 활동일지라도

00:24:12.961 --> 00:24:15.258

그 안에서 여러분만의
역할을 찾으세요.

00:24:15.358 --> 00:24:17.773

역할을 찾아서 여러분의
기획력을 보여주시고

00:24:17.873 --> 00:24:21.274

주도력을 보여주시고 창의력을
발산해보시기 바랍니다.

00:24:21.374 --> 00:24:25.605

뻔한 행사 기록이 아니라
그 안에서 돋보일 수 있는

00:24:25.705 --> 00:24:27.759

나만의 모습을 드러내셔야 돼요.

00:24:27.859 --> 00:24:31.350

이게 굉장히 중요한
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24:31.450 --> 00:24:33.565

제가 예를 들어볼까요?

00:24:33.665 --> 00:24:35.772

체육 대회를 예로 들어봅시다.

00:24:35.872 --> 00:24:37.710

체육 대회는 이제 기록이 안 되죠?

00:24:37.810 --> 00:24:40.234

대회라는 명칭이 붙어 있기 때문에
학생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.

00:24:40.334 --> 00:24:41.829

코메디 같은 상황이기도 한데.

00:24:41.929 --> 00:24:44.455

그래서 많은 학교들은
대회라는 명칭을 빼고

00:24:44.555 --> 00:24:47.283

다른 이름으로 바꿔서
기재를 하게 됩니다.

00:24:47.383 --> 00:24:49.209
체육 대회에 보통 뭐가 들어갑니까?

00:24:49.309 --> 00:24:53.415
대부분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면 체육
대회 내용이 꼬박 꼬박 들어갑니다.

00:24:53.515 --> 00:24:58.102
보통 무슨 무슨 종목의
선수로 참여하여

00:24:58.202 --> 00:25:03.644
아이들과 함께 협동하고 게임을
진행할 때 리더십을 보여줌.

00:25:03.744 --> 00:25:05.535
나쁘지 않습니다.

00:25:05.635 --> 00:25:09.457
그렇지만 너무 흔한 표현이에요.

00:25:09.557 --> 00:25:12.529
체육 대회, 웬만하면
거의 다 참여하죠.

00:25:12.629 --> 00:25:14.798
거의 대부분이 선수로
활약을 합니다.

00:25:14.898 --> 00:25:17.875
체육 대회에 참여를 하면 모두가
리더십을 갖추게 돼요.

00:25:17.975 --> 00:25:21.741
웃기지 않습니까?
그게 진짜 리더십입니까? 아니죠.

00:25:21.841 --> 00:25:26.833
그런데 어떤 학생은 체육 대회라는
본게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,

00:25:26.933 --> 00:25:31.134
체육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
집중하는 학생이었습니다.

00:25:31.234 --> 00:25:35.236
기본적인 스킬도 필요하지만
아주 기초적인 체력이

00:25:35.336 --> 00:25:37.394
굉장히 중요한 대회죠?

00:25:37.494 --> 00:25:39.593
그래서 이 학생은 친구들에게
제안하게 됩니다.

00:25:39.693 --> 00:25:43.466
우리 체육 대회 때 하는 여러

가지 운동 연습하는 것도 좋은데,

00:25:43.566 --> 00:25:47.998

그 전에 매시간 정해서
가볍게 준비운동도 하고

00:25:48.098 --> 00:25:52.215

체력을 키울 수 있는 장으로
삼아보자고 아이디어를 내요.

00:25:52.315 --> 00:25:57.748

학급 회의를 통해서 이런 안이
학생들의 찬성을 받고 진행됩니다.

00:25:57.848 --> 00:26:01.236

그래서 이 학생들은 체육
대회 한 달 전부터

00:26:01.336 --> 00:26:04.266

아침에 일찍 나와서
운동장을 다같이 땁니다.

00:26:04.366 --> 00:26:10.959

그리고 점심 시간에 밥을 먹고 나서
간단한 체조도 하고 산책도 해요.

00:26:11.059 --> 00:26:14.628

물론 반 전체가 하지는 않겠죠,
이탈하는 친구도 있고.

00:26:14.728 --> 00:26:16.692

강제로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.

00:26:16.792 --> 00:26:18.434

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학생이
참여를 하게 됩니다.

00:26:18.534 --> 00:26:21.879

그런데 이런 활동 자체가
체육 대회가 끝난 다음에도

00:26:21.979 --> 00:26:26.627

그 학급만의 고유 활동이
돼서 이 학년이 끝날 때까지

00:26:26.727 --> 00:26:29.362

이 반 학생들은
아침마다 구보를 하고

00:26:29.462 --> 00:26:34.079

점심 시간에는 같이 산책을 하면서
기본적인 체력을 키웁니다.

00:26:34.179 --> 00:26:37.333

이 내용을 담임 선생님이 보시고
그 학생에게 이런 내용을 써줍니다.

00:26:37.445 --> 00:26:45.636

이 학생은 체육 활동을
준비하는 과정에 있어,

00:26:45.736 --> 00:26:51.024

반 학생들에게 준비 운동과
아침 정기 운동을 제안하였고

00:26:51.124 --> 00:26:53.362

체육 대회가 끝난
다음부터 이 활동은

00:26:53.462 --> 00:26:55.695

학급의 고유한 행사로
자리잡게 되었음.

00:26:55.795 --> 00:26:59.859

만약에 이런 내용이
학생부에 기재가 되었다.

00:26:59.959 --> 00:27:03.965

남들은 체육 대회에 참여하였음,
이라는 뻔한 내용이지만

00:27:04.065 --> 00:27:07.378

이 학생은 똑같은 체육 대회라도,

00:27:07.478 --> 00:27:13.318

이 학생의 기획력이라든가
리더십이 드러나게 되겠죠.

00:27:13.418 --> 00:27:16.017

이러한 점을 대학이 원하는 겁니다.

00:27:16.117 --> 00:27:18.652

똑같은 활동이지만 이 활동
내에서 충분히 여러분은

00:27:18.752 --> 00:27:21.794

차별화할 수 있고
개인화할 수 있습니다.

00:27:21.894 --> 00:27:27.113

이러한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담임
선생님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에요.

00:27:27.213 --> 00:27:28.999

바로 여러분입니다.

00:27:29.099 --> 00:27:31.607

여러분이 가고자 있는 여러
가지 역량을 드러내도록

00:27:31.707 --> 00:27:33.215

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.

00:27:33.315 --> 00:27:36.246

이게 드러나서 공식적으로
학생부에 기재가 될 때,

00:27:36.346 --> 00:27:40.019

여러분의 능력은 남들한테
인정받게 되는 거고

00:27:40.119 --> 00:27:43.689

특히 가장 중요한
대학이라는 존재가,

00:27:43.789 --> 00:27:46.917
여러분의 역량을
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.

00:27:47.017 --> 00:27:49.833
이게 가장 중요한
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.

00:27:49.933 --> 00:27:51.909
수학여행을 볼까요?

00:27:52.009 --> 00:27:55.211
거의 모든 학생이 수학여행에
참여를 합니다.

00:27:55.311 --> 00:27:57.134
수학여행, 이렇게 적히죠.

00:27:57.234 --> 00:28:03.176
수학여행, 2017년 6월
3일부터 6월 5일에 참여하여

00:28:03.276 --> 00:28:09.506
어디 어디에 장소를 방문하여서
이러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됨.

00:28:09.606 --> 00:28:11.786
그런데 보통 이러한
문구는 다 똑같아요.

00:28:11.886 --> 00:28:13.494
한 반에 30명 다
똑같이 들어갑니다.

00:28:13.594 --> 00:28:15.518
이런 내용이 적히기보다는,

00:28:15.618 --> 00:28:22.049
수학여행을 가기 전에, 수학여행에서
중요한 곳을 잘 거 아십니까?

00:28:22.149 --> 00:28:24.853
그 가는 곳에 대한
사전 조사를 합니다.

00:28:24.953 --> 00:28:26.832
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
이런 조사를 많이 하게 되죠.

00:28:26.932 --> 00:28:28.105
실제 여행 갈 때는.

00:28:28.205 --> 00:28:31.956
그거를 조사하듯이 학교에서
정해진 여행지기는 하지만

00:28:32.056 --> 00:28:35.149
그 여행지에서 볼 만한 포인트들.

00:28:35.249 --> 00:28:38.908

사진 찍기 좋은 장소, 이러한
것들을 미리 조사해보세요.

00:28:39.008 --> 00:28:42.002

조사하고 아이들에게 수학여행
가기 전에 미리 나눠주세요.

00:28:42.102 --> 00:28:43.657

한 장 정도로 요약 해서.

00:28:43.757 --> 00:28:46.362

당연히 그 내용은 학생들에게만
공유하면 안 되겠죠?

00:28:46.462 --> 00:28:49.345

가장 중요한 답임 선생님이
알고 계셔야 됩니다.

00:28:49.445 --> 00:28:50.497

미리 공유를 합니다.

00:28:50.597 --> 00:28:52.091

그러면 당연히 이 내용은,

00:28:52.191 --> 00:28:56.056

수학여행이 기재되는
내용에 포함이 되겠죠.

00:28:56.156 --> 00:28:58.341

이 학생은 수학여행에 참여하기 전,

00:28:58.441 --> 00:29:02.302

수학여행에 대한 사전
조사를 미리 해서

00:29:02.402 --> 00:29:06.097

학생들에게 사전 정보를
충분히 줬음.

00:29:06.197 --> 00:29:09.753

뭔가 배려라는 인성적인 면에서
플러스 역할을 할 수 있겠죠.

00:29:09.853 --> 00:29:12.313

그리고 또, 이것은
많이 하는 활동입니다.

00:29:12.413 --> 00:29:14.309

다녀 와서 수학여행에 대한
보고서를 작성해주세요.

00:29:14.409 --> 00:29:18.143

많은 학교가 수학여행에 다녀온
다음에 공모전을 많이 합니다.

00:29:18.243 --> 00:29:20.958

수기 공모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
거기에 대한 대비로도

00:29:21.058 --> 00:29:23.892

이런 보고서 작성이 굉장히
큰 도움이 됩니다.

00:29:23.992 --> 00:29:27.472

설사 그런 수기 대회가 없더라도

00:29:27.572 --> 00:29:30.326

여러분만의 수학여행
보고서 작성을 하고요.

00:29:30.426 --> 00:29:34.383

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발표하면
되겠죠, HR 시간에.

00:29:34.483 --> 00:29:38.147

아니면 정말 블로그 만들듯이,

00:29:38.247 --> 00:29:40.541

여행지에 대한 내용이
많이 올라오잖아요?

00:29:40.641 --> 00:29:43.550

그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
출력을 해놓고

00:29:43.650 --> 00:29:45.361

아이들에게 나누어주던가,

00:29:45.461 --> 00:29:50.185

아까 이야기했던 게시판에 붙여놓으면
굉장히 좋은 활동이 되겠죠.

00:29:50.285 --> 00:29:54.573

그리고 이외에도 학급
뉴스라든가 인터뷰들.

00:29:54.673 --> 00:29:56.770

가서 유명한 분들
있을 거 아닙니까?

00:29:56.870 --> 00:29:58.743

혹은 절 같은 데
가면 스님이라든가.

00:29:58.843 --> 00:30:02.875

아니면 어떤 박물관을 갔을 때
거기를 관리하는 분들.

00:30:02.975 --> 00:30:06.195

혹은 관광객들, 이런 분들에게
인터뷰를 해보는 겁니다.

00:30:06.295 --> 00:30:11.076

그리고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도
개최해보세요, 학급 내에서.

00:30:11.176 --> 00:30:15.764

수학여행 기념, 여러분의
이름을 걸고 사진 공모전.

00:30:15.864 --> 00:30:20.103

이런 거를 개최해서 소소한
상품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.

00:30:20.203 --> 00:30:22.503

굉장히 작은 활동이기는 하지만,

00:30:22.603 --> 00:30:28.555

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획력을
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

00:30:28.655 --> 00:30:32.677

물론 이러한 활동을 하기
전에 누가 알아야 됩니까?

00:30:32.777 --> 00:30:35.744

바로 담임 선생님이 미리
알고 계셔야겠죠.

00:30:35.844 --> 00:30:40.571

그래야 그런 과정을 관찰해주시고
그 결과물을 제출했을 때

00:30:40.671 --> 00:30:44.513

그 결과물에 대해서 진위여부를
의심하지 않겠죠.

00:30:44.613 --> 00:30:46.738

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진정성있게,

00:30:46.838 --> 00:30:49.579

자율 활동 속에
녹아들어가게 됩니다.

00:30:49.679 --> 00:30:54.206

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
반드시 사전 조사라든가

00:30:54.306 --> 00:30:57.259

향후 벌어지게 될
관련 활동에 대해서

00:30:57.359 --> 00:31:00.461

한번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.

00:31:00.561 --> 00:31:04.213

학생부는 계획을 짜지 않고
즉흥적으로 하게 되면

00:31:04.313 --> 00:31:06.348

당연히 좋은 활동이
나올 수가 없습니다.

00:31:06.448 --> 00:31:08.135

한 활동을 하더라도 좀 멀리 보고

00:31:08.235 --> 00:31:12.528

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
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,

00:31:12.628 --> 00:31:15.078

일회성 행사에 참여할지라도

00:31:15.178 --> 00:31:18.494

그 참여에 대한 차별화가
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00:31:18.594 --> 00:31:20.460

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
할 수 있습니다.

00:31:20.560 --> 00:31:22.402

학생회를 볼까요?

00:31:22.502 --> 00:31:25.659

보통 많은 학생이
참여를 많이 하죠.

00:31:25.759 --> 00:31:28.053

학급 회장, 부회장
그리고 학생회 임원들.

00:31:28.153 --> 00:31:29.441

굉장히 큰 스펙입니다.

00:31:29.541 --> 00:31:35.329

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학교 내가
아니라 전국으로 펼쳐보세요.

00:31:35.429 --> 00:31:40.492

학급 반장, 여러분이 다니는
학교에만 수십 명입니다.

00:31:40.592 --> 00:31:44.220

여러분의 지역 동네에서만
수백 명이에요.

00:31:44.320 --> 00:31:47.089

이것을 우리나라 전체로 펼쳐보세요.

00:31:47.189 --> 00:31:50.323

매 년 수천 명의 회장이 나옵니다.

00:31:50.423 --> 00:31:54.060

매 년 천여 명의
전교 회장이 나와요.

00:31:54.160 --> 00:31:59.468

큰 스펙입니다, 하지만 아주
차별화된 스펙은 아니에요.

00:31:59.568 --> 00:32:02.069

이러한 학생회 내용,
여러분이 갖고 있는

00:32:02.169 --> 00:32:04.845

회장이라든가 전교 회장이라는 직함.

00:32:04.945 --> 00:32:09.541

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커다란
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

00:32:09.641 --> 00:32:13.934

명칭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
여러분이 하고 있는 활동에서

00:32:14.034 --> 00:32:16.508

여러분의 리더십이 드러나야 됩니다.

00:32:16.608 --> 00:32:19.641

리더십의 다른 말은 이렇게
정의하고 싶어요.

00:32:19.741 --> 00:32:21.907

바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.

00:32:22.007 --> 00:32:24.646

그게 바로 누구입니까?
리더입니다.

00:32:24.746 --> 00:32:30.026

변화를 이끌어내지 않고 그 속해
있는 공동체를 바꾸지 않으면,

00:32:30.126 --> 00:32:35.452

그 리더는 리더십이 없는
리더입니다, 이름뿐인 리더죠.

00:32:35.552 --> 00:32:38.264

진정한 팔로우십이 없는,

00:32:38.364 --> 00:32:41.711

자기를 따르는 사람이
없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.

00:32:41.811 --> 00:32:44.136

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됩니다.

00:32:44.236 --> 00:32:50.047

그런데 문제는 변화라는 게
생각보다 만들어내기 힘듭니다.

00:32:50.147 --> 00:32:54.553

많은 학생 회장이
공약을 내세우죠.

00:32:54.653 --> 00:32:57.989

공약의 이행률은 얼마나 될까요?
적습니다.

00:32:58.089 --> 00:33:01.527

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당선이
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,

00:33:01.627 --> 00:33:04.875

정말로 말도 안 되는
공약 내세웁니다.

00:33:04.975 --> 00:33:09.751

모두 학교 회장들이
매점을 바꾸겠답니다.

00:33:09.851 --> 00:33:12.813

화장실을 바꾸겠대요,
교복을 바꾸겠습니다.

00:33:12.913 --> 00:33:16.585
실제 당선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.

00:33:16.685 --> 00:33:18.230
아까 이야기했었죠?

00:33:18.330 --> 00:33:21.397
변화를 이끌어낼 때는
크게 보지 마세요.

00:33:21.497 --> 00:33:23.897
작은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.

00:33:23.997 --> 00:33:26.975
작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
변화를 이끌어내면,

00:33:27.075 --> 00:33:29.808
리더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

00:33:29.908 --> 00:33:33.825
그런 작은 활동이 모여서
변화를 이끌어내면,

00:33:33.925 --> 00:33:38.713
이 학생 자체는, 여러분 자체는
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.

00:33:38.813 --> 00:33:42.889
그래서 정말로 변화의 내용을
이끌어내기 힘든 큰 변화보다는

00:33:42.989 --> 00:33:47.570
작은 변화들, 이러한 활동
위주로하기를 바랍니다.

00:33:47.670 --> 00:33:50.412
학교에서 왕따를 없애고 싶어요.

00:33:50.512 --> 00:33:55.053
학교 친구들 간의 우애를
굉장히 북돋고 싶습니다.

00:33:55.153 --> 00:33:58.242
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를
굉장히 좋게 만들고 싶어요.

00:33:58.342 --> 00:34:01.070
그런데 힘들죠.
어떻게 할까요?

00:34:01.170 --> 00:34:02.581
작은 활동을 하세요.

00:34:02.681 --> 00:34:05.937
저희 학교 학생이
이런 이벤트를 했습니다.

00:34:06.037 --> 00:34:12.614

아침 일찍 나와서 교문 앞에
학생 임원들이 짹 있어요.

00:34:12.714 --> 00:34:18.225

그리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
박수를 쳐주고 하이파이브를 합니다.

00:34:18.325 --> 00:34:21.499

등교하는 학생, 그리고
학교에 오시는 선생님들,

00:34:21.599 --> 00:34:26.939

누구도 가리지 않고 하이파이브를
하고 서로 허그활동을 해요.

00:34:27.039 --> 00:34:29.608

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겠죠.

00:34:29.708 --> 00:34:36.124

2주 정도 했었는데 첫 날에는
등교 학생들이 수줍어했습니다.

00:34:36.224 --> 00:34:40.483

선생님들도 굉장히 수줍어해서
이렇게 했어요, 하이파이브를.

00:34:40.583 --> 00:34:42.620

그런데 이게 하루,
이틀 지나다보니까

00:34:42.720 --> 00:34:46.036

오히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
하이파이브를 하게 되고

00:34:46.136 --> 00:34:48.258

허그활동을 하게 됐습니다.

00:34:48.358 --> 00:34:50.159

이런 활동이라는 거예요.

00:34:50.259 --> 00:34:53.917

굉장히 피곤하고 짜증이
나는 아침이지만,

00:34:54.017 --> 00:34:56.452

이 하이프라는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

00:34:56.552 --> 00:34:59.888

학생들의 하루가 굉장히
쾌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.

00:34:59.988 --> 00:35:02.693

이러한 작은 변화를
이끌라는 겁니다.

00:35:02.793 --> 00:35:07.618

큰 변화 좋습니다, 하지만 큰
변화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

00:35:07.718 --> 00:35:11.930

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
너무 많이 걸립니다.

00:35:12.030 --> 00:35:15.589
하지만 작은 활동은
단기간에 할 수 있고

00:35:15.689 --> 00:35:18.397
결과 자체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,

00:35:18.497 --> 00:35:24.117
변화라는 리더십의 가장 커다란
제1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.

00:35:24.217 --> 00:35:26.736
학생회 활동, 굉장히
큰 스펙이에요.

00:35:26.836 --> 00:35:30.623
하지만 이 학생의 경력이 빛을
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?

00:35:30.723 --> 00:35:33.785
변화를 이끌어낼 줄 아는
리더십이 필요하다.

00:35:33.885 --> 00:35:36.420
이러한 결과를 내기
위해서는 큰 변화보다는

00:35:36.520 --> 00:35:43.386
작은 변화를 꾸준히 해놓는 게 훨씬 더
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00:35:43.486 --> 00:35:44.808
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.

00:35:44.908 --> 00:35:46.899
자율 활동 자체는
누가 기재를 합니까?

00:35:46.999 --> 00:35:50.446
바로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께서
기재를 하게 됩니다.

00:35:50.546 --> 00:35:55.176
자율 활동을 입력하고 치는
주체는 담임 선생님이에요.

00:35:55.276 --> 00:35:58.895
아무리 활동을 많이 해도
담임 선생님이 모른다면

00:35:58.995 --> 00:36:02.681
여러분의 활동은 미약하게
기재될 수밖에 없죠.

00:36:02.781 --> 00:36:04.211
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,

00:36:04.311 --> 00:36:07.190

일단 활동을 하기 전에 무조건
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.

00:36:07.290 --> 00:36:09.984
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
해줘야 됩니다.

00:36:10.084 --> 00:36:14.170
그 후 나중에 학기 말,
학년 말에 보고서 내용을

00:36:14.270 --> 00:36:19.127
다른 선생님께 제출하면
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보다는

00:36:19.227 --> 00:36:22.082
이런 내용이 있는 결과물 제출 자체가

00:36:22.182 --> 00:36:27.355
훨씬 더 기재되는 내용의 질적인
차이가 정말로 큼니다.

00:36:27.455 --> 00:36:29.072
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지라도

00:36:29.172 --> 00:36:33.733
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
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00:36:33.833 --> 00:36:37.997
담임과의 소통은 학생부
기재의 첫걸음이라고

00:36:38.097 --> 00:36:41.597
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

00:36:41.697 --> 00:36:42.959
잘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.

00:36:43.059 --> 00:36:47.197
여러분이 정말 힘들게
만들어낸 결과물이 그대로,

00:36:47.297 --> 00:36:52.701
여러분이 쏟았던 투입량,
투자량, 산출량,

00:36:52.801 --> 00:36:55.478
결과물을 그대로 얻으라는 겁니다.

00:36:55.578 --> 00:36:59.712
그러기 위해서는 활동한
내용만큼 기재도 잘 돼야겠죠.

00:36:59.812 --> 00:37:03.104
그러기 위해서는 기재하는
담당자인 담임 선생님의

00:37:03.204 --> 00:37:06.945
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
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00:37:07.045 --> 00:37:08.624
자율 활동 포인트입니다.

00:37:08.724 --> 00:37:10.126
가장 중요한 거 뭐니까?

00:37:10.226 --> 00:37:15.125
학교가 아닌 내가
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

00:37:15.225 --> 00:37:20.288
그리고 가장 간단한 거, 학교
HR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

00:37:20.388 --> 00:37:22.977
수많은 교육 시간을 뭐를 이용해서?

00:37:23.077 --> 00:37:26.612
전공이라는 장점을
이용해서 전공과 연결해서

00:37:26.712 --> 00:37:28.647
발표 활동을 해야 됩니다.

00:37:28.747 --> 00:37:31.275
그리고 큰 활동보다는
작은 활동에 집중하는 게

00:37:31.375 --> 00:37:34.704
성과 측면에서 굉장히
돈보일 수 있다.

00:37:34.804 --> 00:37:39.200
그리고 결과물을 여러분에게
오픈돼있는 게시판에 이용해서

00:37:39.300 --> 00:37:41.599
널리 공유해라.

00:37:41.699 --> 00:37:44.089
그리고 마지막, 가장
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?

00:37:44.189 --> 00:37:51.810
담임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
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00:37:51.910 --> 00:37:52.855
이게 바로 뭐니까?

00:37:52.955 --> 00:37:57.492
같은 학교 출신이면 거의
비슷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는

00:37:57.592 --> 00:37:59.661
자율 활동을 어떻게?

00:37:59.761 --> 00:38:03.312
이것도 오타네요?
자율 활동이에요.

00:38:03.412 --> 00:38:10.939

남들과 차별화 될 수 있게
만들 수 있는 시작이라고

00:38:11.039 --> 00:38:12.510

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00:38:12.610 --> 00:38:14.231

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.

00:38:14.331 --> 00:38:18.205

그다음 포인트, 뭐니까?
동아리입니다.

00:38:18.305 --> 00:38:26.129

지금 보고 계시는 표처럼 자소서에서
가장 많은 소재로 쓰는 활동.

00:38:26.229 --> 00:38:29.052

바로 뭐니까?
동아리 활동입니다.

00:38:29.152 --> 00:38:31.942

동아리아말로 여러분의 전공과
여러분의 학교 생활을

00:38:32.042 --> 00:38:36.436

응집해서 표현해내는 아주 차별화되는
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.

00:38:36.536 --> 00:38:38.136

이 동아리 활동 내용은

00:38:38.236 --> 00:38:42.944

대학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
중에서 가장 집중적이고

00:38:43.044 --> 00:38:48.069

가장 많은 내용을 살펴본다고
할 수 있습니다.

00:38:48.169 --> 00:38:51.918

동아리 활동에서 이 네 가지
점에 중점을 뒀서 봐야 됩니다.

00:38:52.018 --> 00:38:57.562

전공 연계성, 흥미, 꾸준함,
그리고 마지막 확장 가능성.

00:38:57.662 --> 00:39:01.638

이 네 가지를 고려하면서 동아리
활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.

00:39:01.738 --> 00:39:04.790

첫 번째, 전공 연계성입니다.

00:39:04.890 --> 00:39:09.706

일단 기왕이면 여러분이 앞으로
대학을 갈 거 아니니까?

00:39:09.806 --> 00:39:11.290

원하는 학과가 있겠죠.

00:39:11.390 --> 00:39:16.579

그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가
훨씬 더 좋을 겁니다.

00:39:16.679 --> 00:39:22.507

왜냐하면 동아리 자체는 그런 비슷한
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

00:39:22.607 --> 00:39:28.587

친구들이 모여서 굉장히
중요한 활동을 하잖아요.

00:39:28.687 --> 00:39:33.375

정말로 뜻이 맞고 자기와 비슷한
꿈을 갖고 있는 친구, 선배.

00:39:33.475 --> 00:39:35.880

그리고 선배들이 가지고
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.

00:39:35.980 --> 00:39:38.682

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,

00:39:38.782 --> 00:39:42.550

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가장
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을

00:39:42.650 --> 00:39:44.528

답을 수 있는 게 동아리 활동인데,

00:39:44.628 --> 00:39:47.323

그 동아리 활동이 기왕이면
뭐가 연관된 게 좋다?

00:39:47.423 --> 00:39:49.365

여러분이 진학하게 될 학과.

00:39:49.465 --> 00:39:52.352

즉 전공과 연관되면
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

00:39:52.452 --> 00:39:54.633

물론 필수는 아니에요.

00:39:54.733 --> 00:39:58.828

모든 동아리 활동이 여러분의 전공과
꼭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.

00:39:58.928 --> 00:40:04.661

하지만 기왕이면 전공과
연관된 동아리 활동이

00:40:04.761 --> 00:40:08.474

유리하면 유리하지,
불리하지는 않다.

00:40:08.574 --> 00:40:09.688

필수는 아니에요.

00:40:09.788 --> 00:40:13.342

선생님, 저 전공과
상관없는 동아리 활동했는데

00:40:13.442 --> 00:40:14.810

마이너스 당하지 않을까요?

00:40:14.910 --> 00:40:16.155

당하지 않습니다.

00:40:16.255 --> 00:40:18.648

어찌됐든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

00:40:18.748 --> 00:40:21.788

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을
끄집어냈을 거 아닙니까?

00:40:21.888 --> 00:40:23.341

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,

00:40:23.441 --> 00:40:26.737

비록 전공과 연관돼있지는 않지만
성장에 도움이 됐을 거 아닙니까?

00:40:26.837 --> 00:40:29.301

그러한 내용이 들어가
있으면 상관없어요.

00:40:29.401 --> 00:40:33.978

하지만 기왕이면 플러스가 되는,

00:40:34.078 --> 00:40:37.521

진학 학과와 연관된 동아리
활동이 더 좋겠죠.

00:40:37.621 --> 00:40:39.309

두 번째입니다, 흥미예요.

00:40:39.409 --> 00:40:41.683

너무 지나치게 전공과
연결시키다보면,

00:40:41.783 --> 00:40:45.731

자기의 흥미와 상관없는 스펙 위주의
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죠.

00:40:45.831 --> 00:40:50.327

이럴 경우 진정성이라는
측면과 연관이 됩니다.

00:40:50.427 --> 00:40:55.311

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
동아리 활동의 전제 조건은

00:40:55.411 --> 00:40:57.737

전공이 아니예요, 흥미입니다.

00:40:57.837 --> 00:40:59.370

여러분이 좋아해야 돼요.

00:40:59.470 --> 00:41:03.255

그리고 여러분이 동아리
활동을 했을 때 힘들지만,

00:41:03.355 --> 00:41:04.730

흥이 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.

00:41:04.830 --> 00:41:07.647

그래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다?
흥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41:07.747 --> 00:41:11.774

흥미가 있고 여기에 더붙어서
전공과 연관성이 있으면

00:41:11.874 --> 00:41:14.729

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
클 수밖에 없겠죠.

00:41:14.829 --> 00:41:16.447

그다음 꾸준함입니다.

00:41:16.547 --> 00:41:19.172

이거는 기본적으로
뭐를 의미하냐면,

00:41:19.272 --> 00:41:25.206

보통 동아리 들어가면
1년 동안 해요.

00:41:25.306 --> 00:41:27.809

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꾸준함은

00:41:27.909 --> 00:41:31.196

한 동아리가 아니에요.

00:41:31.296 --> 00:41:34.614

한 동아리를 계속 한다고 해서
이 학생이 꾸준함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.

00:41:34.714 --> 00:41:37.473

뭐냐? 이 동아리에서 한
활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?

00:41:37.573 --> 00:41:42.908

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
다른 분야와 연계되는 거.

00:41:43.008 --> 00:41:44.625

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41:44.725 --> 00:41:49.123

그래서 단절된 활동이 아니라
연결되는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.

00:41:49.223 --> 00:41:54.042

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이 동아리
활동의 성격과 비슷한 활동을

00:41:54.142 --> 00:41:55.658

다른 거에서도 해야 됩니다.

00:41:55.758 --> 00:41:59.062

독서라든가 아니면 친구들과의
다른 동아리 활동이라든가

00:41:59.162 --> 00:42:01.754

교과내 발표라든가 연결시켜서
하라는 겁니다.

00:42:01.854 --> 00:42:05.009

이거는 바로 뭐와 연결되느냐?

00:42:05.109 --> 00:42:06.701

이것과 연결돼요.

00:42:06.801 --> 00:42:08.678

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.

00:42:08.778 --> 00:42:11.818

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,
바꿉니다.

00:42:11.918 --> 00:42:13.678

마음에 안 들어서
3학년 때 또 바꿉니다.

00:42:13.778 --> 00:42:17.005

이러지 말고 다른 동아리를 하더라도

00:42:17.105 --> 00:42:21.549

동아리 자체가 다르더라도 그
방향성만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

00:42:21.649 --> 00:42:23.159

연결해줘야 돼요.

00:42:23.259 --> 00:42:25.821

이런 연결하는 포인트, 포인트에
뭐가 들어가야 됩니까?

00:42:25.921 --> 00:42:29.652

확장이 들어가야 되고 활동들
간의 연계성이 들어가야 됩니다.

00:42:29.752 --> 00:42:31.432

꾸준함이라는 거.

00:42:31.532 --> 00:42:34.285

한 동아리를 쫓 하는 게 아니에요.

00:42:34.385 --> 00:42:36.889

학년 마다 하는 동아리
내용이 다르더라도,

00:42:36.989 --> 00:42:41.046

전체적인 방향성이 동일하다면

00:42:41.146 --> 00:42:44.832

이 활동 자체는 인정을
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.

00:42:44.932 --> 00:42:48.137

이 꾸준함이 연결되는
포인트, 확장 가능성이죠.

00:42:48.237 --> 00:42:50.477

동아리는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거죠.

00:42:50.577 --> 00:42:53.803

좋아서 한다면 여러분의 전공과 밀접한
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

00:42:53.903 --> 00:42:55.263

그러면 어떻습니까?

00:42:55.363 --> 00:42:58.611

동아리 자체가 활동이 잦아요.

00:42:58.711 --> 00:43:04.179

진짜로 이론적인 게 아니라
몸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

00:43:04.279 --> 00:43:06.690

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00:43:06.790 --> 00:43:08.490

동아리 활동을 합니다.

00:43:08.590 --> 00:43:11.269

전공과 연관된 동아리
활동을 하는 거예요.

00:43:11.369 --> 00:43:14.059

자기가 방송에 관심이 많습니다.

00:43:14.159 --> 00:43:16.148

그래서 방송부 활동을 합니다.

00:43:16.248 --> 00:43:19.834

하다 보니까 여러
친구들을 만나게 되고요.

00:43:19.934 --> 00:43:23.159

방송제를 한다든가 UCC
같은 거를 만들겠죠.

00:43:23.259 --> 00:43:25.474

만들다보면 교내 활동과
연결이 돼요.

00:43:25.574 --> 00:43:28.924

그리고 수업 시간에 발표할 수도
있겠죠,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.

00:43:29.024 --> 00:43:30.636

독서와 연결될 수도 있겠죠?

00:43:30.736 --> 00:43:34.282

흥미가 있는 동아리니까 연관된
독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.

00:43:34.382 --> 00:43:36.954

R&E 보고서, 소논문
활동 할 수 있죠.

00:43:37.054 --> 00:43:40.368
동아리 내에서 친구들과
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면

00:43:40.468 --> 00:43:42.084
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?

00:43:42.184 --> 00:43:45.602
그 내용을 좀 더 발전시키면
주제 탐구 보고서라든가

00:43:45.702 --> 00:43:49.525
소논문과 같은 심화학습과도
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.

00:43:49.625 --> 00:43:54.543
동아리만큼 확장 가능성이 많은
활동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.

00:43:54.643 --> 00:43:56.182
그래서 동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

00:43:56.282 --> 00:43:59.803
학생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
바로 동아리 활동입니다.

00:43:59.903 --> 00:44:01.520
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.

00:44:01.620 --> 00:44:06.283
그런데 문제는 이렇게
특징이 있는 동아리는

00:44:06.383 --> 00:44:09.271
보통 상상의 동아리라고 합니다.

00:44:09.371 --> 00:44:11.537
학교 내에서 인기가 많은 동아리들,

00:44:11.637 --> 00:44:15.503
방송부, 영자신문반, 연극부.
대부분 상설 동아리예요.

00:44:15.603 --> 00:44:17.916
역사가 어느 정도
있는 동아리입니다.

00:44:18.016 --> 00:44:22.137
역사가 있고 체계가 있기
때문에 활동하기가 편하죠.

00:44:22.237 --> 00:44:25.287
그래서 굉장히 학기
초에 인기가 많아요.

00:44:25.387 --> 00:44:29.197
그래서 많은 친구가 이 특정
동아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

00:44:29.297 --> 00:44:32.506
대입 경쟁 하듯이 치열합니다.

00:44:32.606 --> 00:44:35.064
떨어지는 친구는 심지어
울기까지 해요.

00:44:35.164 --> 00:44:39.334
예전 같으면 그 상설
동아리가 없으면

00:44:39.434 --> 00:44:41.183
다른 동아리 활동을
할 수 없기 때문에

00:44:41.283 --> 00:44:44.592
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
공간이 별로 없었어요.

00:44:44.692 --> 00:44:50.824
하지만 지금은 자율
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.

00:44:50.924 --> 00:44:52.064
말 그대로 뭐예요?

00:44:52.164 --> 00:44:54.941
자율적으로 만들어진
동아리라는 거예요.

00:44:55.041 --> 00:44:57.171
없으면 만드세요.

00:44:57.271 --> 00:44:59.776
여러분, 방송부 지원했다가
떨어졌습니다.

00:44:59.876 --> 00:45:03.357
뭐를 만들면 돼요?
학급 방송부를 만드세요.

00:45:03.457 --> 00:45:06.731
여러분만의 작은 방송부를
만들면 됩니다.

00:45:06.831 --> 00:45:10.013
이 자율 동아리는
체계성이 없기 때문에,

00:45:10.113 --> 00:45:14.429
상설 동아리보다 평가할 때
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.

00:45:14.529 --> 00:45:17.639
하지만 상설 동아리에서
맞볼 수 없었던,

00:45:17.739 --> 00:45:21.835
학생이 만든 거기 때문에
주도성, 계획성, 혹은 리더십이

00:45:21.935 --> 00:45:24.107
훨씬 더 발휘가 가능하겠죠.

00:45:24.207 --> 00:45:26.958
그리고 이 자율 동아리는
계획성도 있어야 됩니다.

00:45:27.058 --> 00:45:29.722
왜냐하면 1년 활동을 해야 되기
때문에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.

00:45:29.822 --> 00:45:32.742
그렇기 때문에 꾸준함이
있어야 됩니다.

00:45:32.842 --> 00:45:34.976
더불어 결과물도 있어야겠죠.

00:45:35.076 --> 00:45:37.645
과정이 굉장히 많은데
결과물이 없어요?

00:45:37.745 --> 00:45:40.082
그러면 제대로 활동을
하지 않은 거잖아요.

00:45:40.182 --> 00:45:43.376
그래서 자율 동아리는
계획성과 꾸준함과 실적이라는

00:45:43.476 --> 00:45:46.982
3박자가 딱딱딱 들어맞아야
됩니다, 그래서 힘든 거예요.

00:45:47.082 --> 00:45:51.455
힘들지만 힘든 만큼 가치가 굉장히
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00:45:51.555 --> 00:45:55.978
보통 자율 동아리는 학기
초라든가 학년 초에

00:45:56.078 --> 00:45:58.034
학교에서 지원을 받습니다.

00:45:58.134 --> 00:46:00.976
그래서 1년 동안 하게 될
활동의 계획서를 받고

00:46:01.076 --> 00:46:03.365
일정 수의 학생이
반드시 있어야 되고

00:46:03.465 --> 00:46:07.729
이 동아리를 맡아줄 수 있는
선생님을 확보해야 됩니다.

00:46:07.829 --> 00:46:11.066
그래서 이러한 담당 교사를
확보하기 위해서는

00:46:11.166 --> 00:46:12.614

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?

00:46:12.714 --> 00:46:14.357

계획서를 잘 짜야겠죠.

00:46:14.457 --> 00:46:17.270

잘 짜서 선생님한테 제가
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고,

00:46:17.370 --> 00:46:20.969

이런 동아리를 만들 건데 저희 담당
선생님이 되어 주실 수 있으세요?

00:46:21.069 --> 00:46:22.582

이렇게 미리 선점해야 돼요.

00:46:22.682 --> 00:46:25.680

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다
충족해서 학교에서

00:46:25.780 --> 00:46:29.014

그래, 너희가 만든
자율 동아리 오케이야.

00:46:29.114 --> 00:46:32.908

이렇게 승인이 떨어지면 꾸준한
활동을 해야 되고요.

00:46:33.008 --> 00:46:35.592

그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

00:46:35.692 --> 00:46:39.101

학기 말이라든가 학년 말에 담당
선생님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.

00:46:39.201 --> 00:46:44.334

그래야 자율 동아리의 내용이
학생부에 기재가 됩니다.

00:46:44.434 --> 00:46:46.492

자율 동아리, 힘들어요.

00:46:46.592 --> 00:46:50.442

그리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
시행착오가 많을 겁니다.

00:46:50.542 --> 00:46:54.563

하지만 그 시행착오
하나하나라도 다 기록을 하고

00:46:54.663 --> 00:46:59.179

활동 보고서에 녹아들게
만들면 결과도 좋지만

00:46:59.279 --> 00:47:04.604

과정에서의 내용도 담을 수 있는 게
바로 자율 동아리입니다.

00:47:04.704 --> 00:47:10.224

자율 동아리를 통해서
주도성과 리더십과

00:47:10.324 --> 00:47:13.215
여러분이 갖고 있는
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다.

00:47:13.315 --> 00:47:17.386
다만, 기왕 만들 거면
뭐와 연결하는 게 좋을까요?

00:47:17.486 --> 00:47:23.025
기왕이면 전공과 연결해주는 게
훨씬 더 유리하죠.

00:47:23.125 --> 00:47:24.490
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.

00:47:24.590 --> 00:47:27.363
그런데 전공과 연결하는 게
너무 힘들어요.

00:47:27.463 --> 00:47:30.401
그러면 단순히 교과
스터디도 괜찮아요.

00:47:30.501 --> 00:47:32.390
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.

00:47:32.490 --> 00:47:35.474
수학 공부 활동 동아리를 만드세요.

00:47:35.574 --> 00:47:39.059
영어가 부족한 친구들,
영어 잘하는 친구 섭외해서

00:47:39.159 --> 00:47:41.685
영어 공부 모임을 만드세요.

00:47:41.785 --> 00:47:44.661
이러한 것도 됩니까?
자율 동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.

00:47:44.761 --> 00:47:47.422
그래서 이러한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

00:47:47.522 --> 00:47:51.296
여러분이 변화된 모습,
어떻게 성장했는지,

00:47:51.396 --> 00:47:57.337
그리고 다른 교내 활동으로
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.

00:47:57.437 --> 00:48:03.280
이게 바로 자율 동아리가 가지고
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.

00:48:03.380 --> 00:48:04.909
그다음.

00:48:05.009 --> 00:48:10.190

학중 시대이다 보니까 굉장히
많은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.

00:48:10.290 --> 00:48:13.861

어떤 친구들은 1년에 동아리를
4, 5개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.

00:48:13.961 --> 00:48:17.036

이런 활동, 좋지 않습니다.

00:48:17.136 --> 00:48:18.858

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

00:48:18.958 --> 00:48:21.318

동아리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 자체는

00:48:21.418 --> 00:48:24.303

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
소비가 많다는 겁니다.

00:48:24.403 --> 00:48:28.511

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시간을
소비하는 데도 불구하고

00:48:28.611 --> 00:48:30.401

성적이 좋은 학생이에요.

00:48:30.501 --> 00:48:32.178

그러면 그거는 장점이
될 수 있습니다.

00:48:32.278 --> 00:48:34.558

하지만 동아리 활동은
굉장히 많이 하는데,

00:48:34.658 --> 00:48:37.231

이에 걸맞는 학업 능력을
보여주지 않았어요.

00:48:37.331 --> 00:48:38.841

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평가할까요?

00:48:38.941 --> 00:48:42.619

이 학생은 동아리를 좀 줄이고
공부에 신경을 썼어야 됐다.

00:48:42.719 --> 00:48:44.153

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

00:48:44.253 --> 00:48:46.362

그래서 지나친 동아리
활동은 좋지 않아요.

00:48:46.462 --> 00:48:50.699

보통 제가 학생들에게 권하는 거는
1+1+1 활동입니다.

00:48:50.799 --> 00:48:52.387

상설 동아리 하나 들고요.

00:48:52.487 --> 00:48:55.899
상설 동아리 같은 경우는 꼭 전공과
연결이 안 돼도 되거든요.

00:48:55.999 --> 00:48:59.395
전공과 연결을 시키려면
자율 동아리를 만드세요.

00:48:59.495 --> 00:49:01.618
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.

00:49:01.718 --> 00:49:04.363
교과 관련 자율 동아리를 만드세요.

00:49:04.463 --> 00:49:06.703
자율 동아리가 아닐지라도,

00:49:06.803 --> 00:49:08.996
자율 동아리라고 정식
인정을 못 받았더라도

00:49:09.096 --> 00:49:11.247
여러분이 만드시면 이거는
어디에 기재가 됩니까?

00:49:11.347 --> 00:49:13.484
자율 활동에 기재될 수 있어요.

00:49:13.584 --> 00:49:18.027
그래서 이 세 가지.

00:49:18.127 --> 00:49:21.906
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저는
개인적으로 이상적이라고 봐요.

00:49:22.006 --> 00:49:24.231
정식 동아리 활동 2개와

00:49:24.331 --> 00:49:27.273
혹은 정식일 수도 있고
아닐 수도 있습니다.

00:49:27.373 --> 00:49:28.685
그리고 스터디 활동.

00:49:28.785 --> 00:49:32.728
이 세 가지를 해주면
굉장히 모양새가 좋고

00:49:32.828 --> 00:49:36.028
균형감을 갖추기 때문에,
제대로 스토리만 짜면

00:49:36.128 --> 00:49:40.006
여러분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
1+1+1 동아리 활동입니다.

00:49:40.106 --> 00:49:41.347
그래서 이 세 가지.

00:49:41.447 --> 00:49:45.487

상설 동아리, 자율 동아리 그리고
교과와 관련된 스터디 동아리.

00:49:45.587 --> 00:49:48.376
이 세 가지를 1년 동안 하면

00:49:48.476 --> 00:49:52.960
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
가능성이 높습니다.

00:49:53.060 --> 00:49:54.643
동아리 활동 포인트입니다.

00:49:54.743 --> 00:49:59.178
일단 기본적인 동아리는 전공이
연계되면 플러스 요소이다.

00:49:59.278 --> 00:50:02.090
물론 무조건 전공과
연결될 필요는 없어요.

00:50:02.190 --> 00:50:08.084
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비록 나의
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

00:50:08.184 --> 00:50:12.644
내 성장에 도움이 된 활동이라면
그 가치를 인정해줍니다.

00:50:12.744 --> 00:50:18.123
하지만 이왕이면 전공과
연결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.

00:50:18.223 --> 00:50:20.875
그리고 당연히 개인의 흥미가
밑바탕이 돼야겠죠.

00:50:20.975 --> 00:50:23.030
그리고 한 학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

00:50:23.130 --> 00:50:25.418
학년이 넘어가면서 꾸준함을
보여줘야 됩니다.

00:50:25.518 --> 00:50:28.698
이때의 꾸준함은 동일한
동아리가 아니어도 좋아요.

00:50:28.798 --> 00:50:31.493
방향성 자체가 하나로만
가면 상관없습니다.

00:50:31.593 --> 00:50:35.777
그다음에 다른 활동으로의
확장, 이게 키포인트예요.

00:50:35.877 --> 00:50:37.433
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
확장이 되지 않고

00:50:37.533 --> 00:50:41.366

여기서 머물게 되면 그 활동의
빛은 바래지게 됩니다.

00:50:41.466 --> 00:50:44.029
그다음에 자을 동아리,
이제 필수예요.

00:50:44.129 --> 00:50:48.020
상설 동아리만 해서는 여러분의
역량을 발휘하기 힘듭니다.

00:50:48.120 --> 00:50:53.821
특히 자을 동아리만큼은 뭐와 연결시키자?
전공과 연결시키자.

00:50:53.921 --> 00:50:56.428
그다음에 1+1+1

00:50:56.528 --> 00:51:03.676
상설 동아리, 자을 동아리,
그리고 스터디 동아리.

00:51:03.776 --> 00:51:06.567
이거를 해보자.

00:51:06.667 --> 00:51:09.845
이러한 활동을 하더라도
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이 없고

00:51:09.945 --> 00:51:12.349
성장이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

00:51:12.449 --> 00:51:15.680
그 활동은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.

00:51:15.780 --> 00:51:22.201
모든 활동은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에
반드시 도움이 돼야 됩니다.

00:51:22.301 --> 00:51:25.035
이런 활동을 통해 여러분은
성장을 해야 되고

00:51:25.135 --> 00:51:27.528
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

00:51:27.628 --> 00:51:30.694
다른 활동으로의 확장을
보여줘야 됩니다.

00:51:30.794 --> 00:51:35.042
이런 활동을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
창의적 활동이 빛이 나게 돼요.

00:51:35.142 --> 00:51:36.968
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.

00:51:37.068 --> 00:51:41.621
이제 우리가 볼 거는 자동봉진 중에
세 번째인 봉사 활동입니다.

00:51:41.721 --> 00:51:44.264

예전에 봉사 활동 굉장히
중요하게 여겼습니다.

00:51:44.364 --> 00:51:47.892

어떤 친구는 1년에 300시간
채운 학생도 있어요.

00:51:47.992 --> 00:51:49.326

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.

00:51:49.426 --> 00:51:53.485

예전에는 봉사 자체도
스펙으로 봤기 때문에

00:51:53.585 --> 00:51:55.285

양적인 거를 굉장히 강조했었어요.

00:51:55.385 --> 00:51:57.781

그런데 지금은 양적인
것도 중요하지만,

00:51:57.881 --> 00:52:02.571

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적인
측면에 많은 가치를 둡니다.

00:52:02.671 --> 00:52:06.457

그래서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로 질적인
거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.

00:52:06.557 --> 00:52:10.845

봉사는 대놓고 인성을 판단하는 거죠.

00:52:10.945 --> 00:52:16.666

이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
시간을 투자, 희생해서

00:52:16.766 --> 00:52:19.254

남들에게 해주는 봉사인 거잖아요.

00:52:19.354 --> 00:52:22.303

대신에 예전보다 시간이
중요한 거는 아니다.

00:52:22.403 --> 00:52:26.882

아무리 100시간, 300시간
하더라도 질적인 내용에서 떨어지면

00:52:26.982 --> 00:52:29.259

진정한 봉사 활동이라고
인정받기 힘듭니다.

00:52:29.359 --> 00:52:36.096

그리고 교외 봉사 활동
굉장히 중요하고요.

00:52:36.196 --> 00:52:40.452

진정성이라는 것, 어떻게 보면 봉사
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.

00:52:40.552 --> 00:52:44.504

진정성이 봉사 활동을
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.

00:52:44.604 --> 00:52:46.548
인성을 판단하는 겁니다.

00:52:46.648 --> 00:52:49.019
학생의 인성을 다루는 공식 자료죠.

00:52:49.119 --> 00:52:53.560
학교가 인증하는 거죠, 이 학생의
인성은 이러 이러합니다.

00:52:53.660 --> 00:52:57.919
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게 바로
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52:58.019 --> 00:53:02.216
봉사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갖고
있는 배려, 나눔, 협동,

00:53:02.316 --> 00:53:04.526
리더십을 알 수 있게 되겠죠.

00:53:04.626 --> 00:53:09.360
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보통
자기 소개서 3번 항목과 연결됩니다.

00:53:09.460 --> 00:53:11.190
인성 굉장히 중요하죠.

00:53:11.290 --> 00:53:13.376
대학이 인성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.

00:53:13.476 --> 00:53:16.507
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,

00:53:16.607 --> 00:53:20.579
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서
수치화하기 힘든 거잖아요?

00:53:20.679 --> 00:53:23.739
그래서 절대적인 비중을
차지하지는 않습니다.

00:53:23.839 --> 00:53:25.645
양보다는 질이예요.

00:53:25.745 --> 00:53:28.264
봉사 활동은 결코
다다익선이 아닙니다.

00:53:28.364 --> 00:53:31.273
봉사 시간이 100시간,
200시간 중요한 게 아니예요.

00:53:31.373 --> 00:53:34.338
300시간을 하더라도
50시간 한 친구보다,

00:53:34.438 --> 00:53:36.555

좋지 못한 평가를
받을 수도 있습니다.

00:53:36.655 --> 00:53:38.769
지나친 봉사 활동은 독이에요.

00:53:38.869 --> 00:53:44.874
자기가 사회 복지 학과를
가려는 친구가 아니라면,

00:53:44.974 --> 00:53:47.465
굳이 너무 많은 봉사 활동을
할 필요는 없어요.

00:53:47.565 --> 00:53:49.214
물론 좋아서 한다면 상관없겠죠.

00:53:49.314 --> 00:53:54.361
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봉사 활동
시간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진다.

00:53:54.461 --> 00:53:56.604
다른 활동이 떨어진다.

00:53:56.704 --> 00:54:02.903
봉사 활동의 가치를 자기가 한 것보다
높은 평가를 받기는 힘듭니다.

00:54:03.003 --> 00:54:05.525
그래서 지나친 봉사 활동,
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.

00:54:05.625 --> 00:54:09.566
더군다나 사회 복지 학과가 아니라면

00:54:09.666 --> 00:54:15.535
이러한 봉사 활동에 대해서 면접볼 때
그렇게 많이 질문하지 않습니다.

00:54:15.635 --> 00:54:17.725
진위여부만 확인하겠죠.

00:54:17.825 --> 00:54:21.510
그렇기 때문에 봉사가 굉장히
중요한 항목이기는 하지만,

00:54:21.610 --> 00:54:26.936
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
생각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

00:54:27.036 --> 00:54:28.764
그다음 내용입니다.

00:54:28.864 --> 00:54:30.481
교외 봉사 활동이에요.

00:54:30.581 --> 00:54:35.716
왜냐하면 여러분의 봉사 활동 시간을
학교에서 고정적으로 줍니다.

00:54:35.816 --> 00:54:37.536

기본적으로 주는 봉사
활동이 있어요.

00:54:37.636 --> 00:54:40.301
그리고 교내 봉사 활동은
굉장히 많이 줍니다.

00:54:40.401 --> 00:54:43.855
전체 시간을 보면 굉장히
많이 한 친구들이 많아요.

00:54:43.955 --> 00:54:45.050
100시간 넘게 한
친구들이 많습니다.

00:54:45.150 --> 00:54:48.120
그런데 100시간 중에
3분의 1이 교내 봉사 활동이에요?

00:54:48.220 --> 00:54:49.477
인정받지 못합니다.

00:54:49.577 --> 00:54:53.661
대학도 알아요, 이 학교는 학생들의
봉사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

00:54:53.761 --> 00:54:55.722
봉사 시간을 퍼주는구나,
알고 있습니다.

00:54:55.822 --> 00:55:00.771
그래서 많은 대학은 교내 봉사에
대한 신뢰도를 낮게 가져요.

00:55:00.871 --> 00:55:02.656
교내 봉사 신뢰하지 않습니다.

00:55:02.756 --> 00:55:07.130
물론 진정한 교내 봉사 활동은
좋은 것도 있습니다.

00:55:07.230 --> 00:55:10.568
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
교내 봉사 활동은

00:55:10.668 --> 00:55:15.566
대학 평가자의 눈에 그렇게
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.

00:55:15.666 --> 00:55:19.129
그래서 교내 봉사
활동도 중요하지만,

00:55:19.229 --> 00:55:25.841
이거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할 수
있는 거는 교외 봉사 활동입니다.

00:55:25.941 --> 00:55:28.702
마찬가지예요, 지나치게
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.

00:55:28.802 --> 00:55:31.414

개인적으로 봤을 때, 년 30시간.

00:55:31.514 --> 00:55:36.971

한 달에 3시간 정도

교외 활동을 하는 게

00:55:37.071 --> 00:55:39.733

저는 기본적으로 딱

적합하다고 봐요.

00:55:39.833 --> 00:55:43.889

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,

한 곳에서 꾸준히 합니다.

00:55:43.989 --> 00:55:48.194

연 30시간 봉사를 한다고 해도,

00:55:48.294 --> 00:55:51.303

3년으로 치면 100시간

정도 되거든요.

00:55:51.403 --> 00:55:56.979

그렇다하더라도 여기저기서

쫄쫄쫄 한 봉사 활동보다는

00:55:57.079 --> 00:56:02.105

한 곳에서 꾸준히한

교외 봉사 활동이 훨씬 더 좋겠죠.

00:56:02.205 --> 00:56:03.993

뭐와 연결이 되느냐?

00:56:04.093 --> 00:56:06.606

바로 이 진정성과

연관되기 때문이에요.

00:56:06.706 --> 00:56:09.211

봉사 활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,

00:56:09.311 --> 00:56:11.252

물론 양도 보기는 봅니다.

00:56:11.352 --> 00:56:12.887

예전만큼 높게 보지는 않아요.

00:56:12.987 --> 00:56:14.286

질적인 측면도 봐요.

00:56:14.386 --> 00:56:17.398

그런데 이러한 질적인 측면을

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점은

00:56:17.498 --> 00:56:18.954

바로 이 진정성이에요.

00:56:19.054 --> 00:56:25.660

이 학생이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

봉사 활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.

00:56:25.760 --> 00:56:27.135

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?

00:56:27.235 --> 00:56:30.168

이 학생이 한 봉사
활동을 보면 나와요.

00:56:30.268 --> 00:56:34.789

교외 봉사 활동 시간을 채우기
위해서 찢끔 찢끔 한 게 아니라,

00:56:34.889 --> 00:56:37.332

이 학생이 한 곳에서
꾸준히 한 거예요.

00:56:37.432 --> 00:56:39.940

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
고아원을 방문하고

00:56:40.040 --> 00:56:41.896

다문화 학생들에게 상담해주고

00:56:41.996 --> 00:56:43.995

초등학교 가서 봉사
활동하는 겁니다.

00:56:44.095 --> 00:56:48.393

이 학생은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
봉사 활동을 한 게 아니라

00:56:48.493 --> 00:56:51.515

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 봉사
활동에 애정이 있다는 게

00:56:51.615 --> 00:56:52.955

드러나는 거거든요.

00:56:53.055 --> 00:56:54.978

그래서 한 곳에서 쭉
하는 게 좋아요.

00:56:55.078 --> 00:56:58.051

그리고 이럴 경우에는
고3 때도 하는 게 좋습니다.

00:56:58.151 --> 00:57:00.269

많은 친구가 놓치는
부분이 있어요.

00:57:00.369 --> 00:57:02.155

고1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.

00:57:02.255 --> 00:57:05.795

그런데 고3 때는 모든 것을
끊어요,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.

00:57:05.895 --> 00:57:07.610

예전에는 이런 변명이 통했어요.

00:57:07.710 --> 00:57:09.187

그런데 요즘에는 통하지 않습니다.

00:57:09.287 --> 00:57:11.817

왜냐하면 지금은 양으로
승부하는 게 아니에요.

00:57:11.917 --> 00:57:14.390

한 달에 3시간 정도
투자하는 겁니다.

00:57:14.490 --> 00:57:19.052

아무리 고3이 바쁘다 할지라도
한 달에 한 번 정도,

00:57:19.152 --> 00:57:23.419

주말에 3시간 짬내기가 힘들니까?
아니에요.

00:57:23.519 --> 00:57:24.998

이거 안 믿어요, 대학들이.

00:57:25.098 --> 00:57:29.176

고3이 바쁘지만 이 정도의 시간은
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알아요.

00:57:29.276 --> 00:57:32.788

그래서 이왕이면 1, 2학년 때
꾸준히 해온 봉사 활동이라면,

00:57:32.888 --> 00:57:36.483

바쁜 고3일지라도
어떻게 해줘야 돼요?

00:57:36.583 --> 00:57:39.470

하루 정도는 빼서 그
봉사 활동을 하는 게

00:57:39.570 --> 00:57:42.688

훨씬 더 진정성을 인정받는
길이기도 합니다.

00:57:42.788 --> 00:57:45.280

그리고 봉사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?

00:57:45.380 --> 00:57:48.267

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게
해주는 역할도 합니다.

00:57:48.367 --> 00:57:50.642

그래서 나눔이 좋고 배려가
 좋다는 게 그거예요.

00:57:50.742 --> 00:57:54.410

보통 나눔과 배려라는 게
남을 위해서도 하지만

00:57:54.510 --> 00:57:56.693

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.

00:57:56.793 --> 00:57:59.862

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
받고 힘든 고3 시기이지만,

00:57:59.962 --> 00:58:02.461

남을 위해서 봉사 활동함으로써

00:58:02.561 --> 00:58:08.837

억눌려 있던 스트레스를 푸는 기회의
장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.

00:58:08.937 --> 00:58:10.949

이러한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죠.

00:58:11.049 --> 00:58:16.346

그리고 재능 봉사도 제가 굉장히
추천하는 봉사 활동 중에 하나예요.

00:58:16.446 --> 00:58:18.853

재능 봉사 활동도
나눔이죠, 봉사니까.

00:58:18.953 --> 00:58:21.067

그리고 재능 봉사가 뭡니까?

00:58:21.167 --> 00:58:23.757

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
남에게 베푸는 거예요.

00:58:23.857 --> 00:58:27.705

여러분이 가지고 있는
학업 역량 나타내는 거죠?

00:58:27.805 --> 00:58:30.062

그리고 특히 전공 적합성.

00:58:30.162 --> 00:58:32.219

자기가 이공계 쪽으로 가고 싶어요.

00:58:32.319 --> 00:58:34.848

수학을 좀 잘해요, 그러면
어떻게 하면 됩니까?

00:58:34.948 --> 00:58:36.900

수학과 관련된 봉사
활동 하면 되는 거죠.

00:58:37.000 --> 00:58:38.286

수학 멘토 활동을 하면 돼요.

00:58:38.386 --> 00:58:42.356

자기의 꿈이 교사입니다.
교사면 뭘 해야 됩니까?

00:58:42.456 --> 00:58:44.215

남을 가르칠 수 있는
능력이 있어야겠죠?

00:58:44.315 --> 00:58:46.536

남을 가르치는 봉사
활동을 하는 겁니다.

00:58:46.636 --> 00:58:48.046

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

00:58:48.146 --> 00:58:50.707

나눔과 학업 역량과
전공 적합성이라는

00:58:50.807 --> 00:58:55.425

세 가지 토끼를 재능 봉사
활동에서 표현해낼 수 있어요.

00:58:55.525 --> 00:59:02.439

그래서 많은 학교가 혹은 많은
학급이 멘토제를 하고 있어요.

00:59:02.539 --> 00:59:07.861

멘토가 돼서 옆에 짝꿍에게
공부를 가르쳐줄 수 있겠죠.

00:59:07.961 --> 00:59:09.027

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.

00:59:09.127 --> 00:59:13.433

특히 교사가 꿈인
친구라면 이 재능 봉사,

00:59:13.533 --> 00:59:15.866

즉 멘토 활동은 거의 필수입니다.

00:59:15.966 --> 00:59:20.907

교사를 지망하는 학생, 교대나
사대를 지원하는 학생 치고

00:59:21.007 --> 00:59:24.267

멘토 봉사 활동이
없는 친구는 없어요.

00:59:24.367 --> 00:59:27.174

거의 기본 옵션입니다.

00:59:27.274 --> 00:59:29.740

기본으로 깔고 가야
되는 활동이기 때문에,

00:59:29.840 --> 00:59:32.339

정말 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,

00:59:32.439 --> 00:59:36.440

물론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지만
거의 기본적인 옵션이 됐기 때문에

00:59:36.540 --> 00:59:39.906

멘토 활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

00:59:40.006 --> 00:59:41.845

봉사 활동 포인트입니다.

00:59:41.945 --> 00:59:45.302

일단 봉사 활동의 평가
대상은 양이 아니에요.

00:59:45.402 --> 00:59:47.254

다다익선이 결코 아닙니다.

00:59:47.354 --> 00:59:49.176

지나친 봉사 활동은
독이 될 수 있습니다.

00:59:49.276 --> 00:59:52.988

그리고 교내 봉사보다는 외부
봉사가 훨씬 더 가치있습니다.

00:59:53.088 --> 00:59:57.550

보통 외부 활동은 학생부
기재가 안 돼요.

00:59:57.650 --> 01:00:02.295

유일하게 인정받는 외부
활동은 봉사밖에 없습니다.

01:00:02.395 --> 01:00:03.655

최대한 이용하셔야겠죠.

01:00:03.755 --> 01:00:06.805

그리고 여러 군데로
나누기보다는 한 군데에서

01:00:06.905 --> 01:00:09.698

쫓 하는 활동이 훨씬
더 가치가 있다.

01:00:09.798 --> 01:00:15.472

그리고 바쁜 고3 시기이지만
학종을 지원하는 친구라면

01:00:15.572 --> 01:00:20.920

고3 때에도 1, 2학년 때 했었던
봉사 활동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.

01:00:21.020 --> 01:00:25.740

그리고 재능 봉사는 나눔이라는
미덕을 행사하기도 하지만

01:00:25.840 --> 01:00:29.717

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
기회이기도 하다.

01:00:29.817 --> 01:00:32.188

이 점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.

01:00:32.288 --> 01:00:33.884

봉사 활동 포인트였습니다.

01:00:33.984 --> 01:00:39.246

마지막, 자동봉진 중에 마지막인
진로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1:00:39.346 --> 01:00:41.243

제가 이야기했었죠?

01:00:41.343 --> 01:00:44.238

학종에서 가장 유리한 친구는 뭐다?

01:00:44.338 --> 01:00:47.836

진로를 미리 설정한

친구라고 했습니다.

01:00:47.936 --> 01:00:52.057
진로를 미리 설정하는 친구는
학생부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

01:00:52.157 --> 01:00:53.321
굉장히 쉽습니다.

01:00:53.421 --> 01:00:55.486
왜냐하면 활동 자체에 대해서
해야 될지,

01:00:55.586 --> 01:00:57.287
말아야 될지 명확하게 나눠거든요.

01:00:57.387 --> 01:00:59.859
그리고 활동의 연결성
자체가 뛰어나요.

01:00:59.959 --> 01:01:03.477
그렇기 때문에 진로 활동
자체 굉장히 중요합니다.

01:01:03.577 --> 01:01:07.791
대신에 진로 활동이라는 거는 학년
별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.

01:01:07.891 --> 01:01:12.003
1학년은 폭넓게 해주는 게 좋아요.

01:01:12.103 --> 01:01:15.800
왜냐하면 1학년은
진로 탐색의 기간이

01:01:15.900 --> 01:01:17.703
가장 많이 주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

01:01:17.803 --> 01:01:22.797
2, 3학년에 비해서 활동의
폭이 넓은 때입니다.

01:01:22.897 --> 01:01:26.123
왜냐하면 전공이 딱 정해져
있지 않기 때문이죠.

01:01:26.223 --> 01:01:30.390
그래서 1학년 때 진로 희망을
어떻게 적으면 좋습니까?

01:01:30.490 --> 01:01:32.084
폭 넓게 적는 게 좋아요.

01:01:32.184 --> 01:01:37.353
과학자, 교육계 종사,
즉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진로에

01:01:37.453 --> 01:01:39.593
가장 큰 카테고리를 적어두고

01:01:39.693 --> 01:01:42.940

그 내용에 맞게 활동을
해주는 게 좋습니다.

01:01:43.040 --> 01:01:45.226
1학년 때부터 너무 좋게 가면,

01:01:45.326 --> 01:01:49.024
물론 좋게 가서 3학년 때까지
쭉 가면 좋아요.

01:01:49.124 --> 01:01:51.614
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모르죠.

01:01:51.714 --> 01:01:54.810
쭉 좁혀왔다가 2, 3학년 때
바꿀 수 있잖아요.

01:01:54.910 --> 01:01:56.801
그러면 굉장히 방향을
틀기가 힘듭니다.

01:01:56.901 --> 01:01:58.284
급커브를 돌아야 돼요.

01:01:58.384 --> 01:02:00.930
급커브를 돌게 되면
사고날 가능성이 높죠.

01:02:01.030 --> 01:02:05.115
그래서 이왕이면 좁은 차로보다는
넓은 차로로 가는 게 좋습니다.

01:02:05.215 --> 01:02:07.990
그래서 일단 1학년 때 진로
설정은 폭넓게 하는 게 좋고요.

01:02:08.090 --> 01:02:10.738
진로 희망 역시 폭넓게
적어주는 게 좋습니다.

01:02:10.838 --> 01:02:13.781
그런데 이러한 내용은
2학년에 가면 바뀌게 돼요.

01:02:13.881 --> 01:02:16.133
2학년은 전공을 정하게 되죠?

01:02:16.233 --> 01:02:18.378
인문계와 이공계를 정하게 됩니다.

01:02:18.478 --> 01:02:22.320
1학년 때에 비해서 명확하게
전공 혹은 진로라는 길이

01:02:22.420 --> 01:02:24.411
좁아질 수밖에 없어요.

01:02:24.511 --> 01:02:30.734
1학년이 8차선 대로변이라면 2학년은
4차선의 좁은 도로가 됩니다.

01:02:30.834 --> 01:02:34.705
당연히 좁기 때문에 1학년보다는
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.

01:02:34.805 --> 01:02:37.062
1학년 때 과학자였으면
2학년 때 물리학자.

01:02:37.162 --> 01:02:41.139
1학년 때 교육 관련 종사였으면
2학년 때 교사 정도로

01:02:41.239 --> 01:02:43.362
좁힐 필요는 있습니다.

01:02:43.462 --> 01:02:45.322
3학년입니다, 제일 중요하죠.

01:02:45.422 --> 01:02:49.078
진학할 학과와 무조건
관련이 있어야 돼요.

01:02:49.178 --> 01:02:53.663
왜냐하면 3학년 때 거의 어느
학과에 갈지 정해놔줬죠.

01:02:53.763 --> 01:02:56.894
그거에 맞게 진로 희망을
써주는 게 좋고요.

01:02:56.994 --> 01:02:59.982
관련된 진로 활동도 거기에
맞춰가면 좋습니다.

01:03:00.082 --> 01:03:03.335
다만 1, 2학년 때
보여준 흐름이 있죠?

01:03:03.435 --> 01:03:05.635
흐름에서는 크게 벗어나면 안 돼요.

01:03:05.735 --> 01:03:07.743
물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,

01:03:07.843 --> 01:03:10.718
진로 내용 자체가 변경이
돼도 상관없습니다.

01:03:10.818 --> 01:03:14.683
없지만 너무 급하게 변경하게
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

01:03:14.783 --> 01:03:16.747
변경을 하더라도 급커브가 아니라

01:03:16.847 --> 01:03:19.084
완만한 커브를 돌 수
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

01:03:19.184 --> 01:03:23.036
그래서 만약에 1학년 때 과학자,

2학년 때 물리학자로 갔으면

01:03:23.136 --> 01:03:25.969

3학년 때는 좀 더 확 좁혀서
분자 바이러스 공학자.

01:03:26.069 --> 01:03:28.439

교육 관계 종사자, 교사,

01:03:28.539 --> 01:03:31.229

3학년 때 만큼은 특정 과목의
교사, 영어 교사.

01:03:31.329 --> 01:03:36.570

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진로의
방향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 유리합니다.

01:03:36.670 --> 01:03:38.373

제가 말씀드렸죠?

01:03:38.473 --> 01:03:40.977

진로의 변경은 결정적인
영향은 아닙니다.

01:03:41.077 --> 01:03:43.191

왜냐하면 보통 진로 변경을 하더라도

01:03:43.291 --> 01:03:45.805

학생들은 크게 돌지는 않아요.

01:03:45.905 --> 01:03:48.148

전체 뿌리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.

01:03:48.248 --> 01:03:50.225

가지 정도에서 바뀔뿐이에요.

01:03:50.325 --> 01:03:55.665

그래서 크게 불리하지는 않지만
활동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자면,

01:03:55.765 --> 01:03:58.041

불리할 수는 있다,
이 점 기억해주시고요.

01:03:58.141 --> 01:04:00.976

그리고 설사 바꿨어요.

01:04:01.076 --> 01:04:03.404

정말 불리함을 알지만 바꿨습니다.

01:04:03.504 --> 01:04:04.909

하지만 그 이유가 명확해요,

01:04:05.009 --> 01:04:08.039

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소명할 수가
있으면 상관없습니다.

01:04:08.139 --> 01:04:11.760

자소서라든가 면접볼 때
자기의 진로 변경에 대해서

01:04:11.860 --> 01:04:15.681

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크게
마이너스 당하지는 않습니다.

01:04:15.781 --> 01:04:20.002

대신에 여태까지 해왔던
활동의 방향성의 손해만큼은

01:04:20.102 --> 01:04:22.659

감수하셔야 됩니다.

01:04:22.759 --> 01:04:24.111

진로 활동입니다.

01:04:24.211 --> 01:04:26.182

요즘 많은 학교는 굉장히
노력을 많이 합니다.

01:04:26.282 --> 01:04:28.737

예전에 비해서 학교 자체의
프로그램이 많고요.

01:04:28.837 --> 01:04:31.520

특히 진로라는 영역이
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

01:04:31.620 --> 01:04:33.797

학생들의 진로 설정을 해줍니다.

01:04:33.897 --> 01:04:37.345

그래서 많은 학교가
진로 특강이라든가

01:04:37.445 --> 01:04:39.954

직업인 특강이라든가
학과 탐색이라든가

01:04:40.054 --> 01:04:42.493

유명 인사 초청해서 강의하는
활동을 많이 해요.

01:04:42.593 --> 01:04:44.367

그래서 학교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

01:04:44.467 --> 01:04:48.443

학생들에게 진로 설정의
길을 제공해줍니다.

01:04:48.543 --> 01:04:52.902

문제는 이런 활동 하나하나가 대부분
일회성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.

01:04:53.002 --> 01:04:56.337

그래서 많은 친구는
단순하게 참여해서

01:04:56.437 --> 01:04:58.927

학생 기록부에 적히는 것을
목표로 하지만

01:04:59.027 --> 01:05:01.773

결코 이러한 활동은
의미있는 활동이 아니에요.

01:05:01.873 --> 01:05:06.148
이러한 활동이 정말 의미를 갖기
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?

01:05:06.248 --> 01:05:07.937
바로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.

01:05:08.037 --> 01:05:13.022
활동을 하게 될 때 설사 일회성,
딱 하루만 하는 활동이라도

01:05:13.122 --> 01:05:16.292
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
동기가 있어야 됩니다.

01:05:16.392 --> 01:05:17.721
내용도 있어야 되고요.

01:05:17.821 --> 01:05:21.878
그 활동을 하고 나서 느끼고
배운 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.

01:05:21.978 --> 01:05:24.696
이러한 것들을 채워넣기
위해서는 당연히,

01:05:24.796 --> 01:05:27.148
그 활동에 대한 사전
조사 하셔야 됩니다.

01:05:27.248 --> 01:05:29.631
일회성 특강이에요.

01:05:29.731 --> 01:05:32.089
특강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

01:05:32.189 --> 01:05:34.463
특강의 주제에 대해서
미리 연구를 해오세요.

01:05:34.563 --> 01:05:38.177
사전 조사를 하면 특강을 들을 때
듣는 자세가 다릅니다.

01:05:38.277 --> 01:05:40.993
그리고 듣고 나서 질문
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.

01:05:41.093 --> 01:05:45.439
특강하신 강사님한테 가서 정말로
많은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.

01:05:45.539 --> 01:05:48.207
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
조사를 하고 나서

01:05:48.307 --> 01:05:51.246
특강을 들으면 정말 이후

활동을 짜는 데 편해져요.

01:05:51.346 --> 01:05:53.305
왜냐하면 부족한 점이 느껴지거든요.

01:05:53.405 --> 01:05:56.381
그 부족한 점을
독서라든가 토론이라든가

01:05:56.481 --> 01:05:59.177
이런 활동을 통해서
충족할 수 있게 되고요.

01:05:59.277 --> 01:06:02.201
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?
확장이 되는 거예요.

01:06:02.301 --> 01:06:06.222
이런 거를 통해서 보고서를
작성할 수 있겠죠.

01:06:06.322 --> 01:06:12.709
그거를 작성하게 되면 남들과 차별화되는
진로 활동도 적힐 수 있습니다.

01:06:12.809 --> 01:06:14.930
굉장히 중요하죠.

01:06:15.030 --> 01:06:17.038
교외 진로입니다.

01:06:17.138 --> 01:06:19.780
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,

01:06:19.880 --> 01:06:22.660
학중이라는 자체가 교내
활동 중심이에요.

01:06:22.760 --> 01:06:27.507
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외
활동이 위축됐어요.

01:06:27.607 --> 01:06:28.972
그런데 문제는 뭐다?

01:06:29.072 --> 01:06:32.431
교외 활동, 특히 진로
활동 같은 경우에는

01:06:32.531 --> 01:06:34.828
질 높은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.

01:06:34.928 --> 01:06:39.746
여러분의 학교는 한계가 있어요,
진로 활동을 하는 데.

01:06:39.846 --> 01:06:42.208
왜냐하면 금전적인 면에서
한계가 있기 때문에,

01:06:42.308 --> 01:06:45.421

정말로 유명한, 질 높은
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.

01:06:45.521 --> 01:06:49.037

하지만 학교보다 덩치가
큰 교육청이라든가

01:06:49.137 --> 01:06:52.864

도서관 같은 경우에는
학교에서 할 수 없는

01:06:52.964 --> 01:06:55.384

여러 가지 진로 활동을
많이 하게 됩니다.

01:06:55.484 --> 01:06:59.793

그런데 중요한 점은
이 진로 활동의 경우는

01:06:59.893 --> 01:07:02.338

학생부에 기재되는 확률이 높아요.

01:07:02.438 --> 01:07:05.154

왜냐하면 대부분의 진로
활동이 교육청이라든가

01:07:05.254 --> 01:07:07.126

도서관에서 주관하는
행사가 많거든요.

01:07:07.226 --> 01:07:11.777

기본적으로 교외 활동이라든
교육청이 주관이 돼서

01:07:11.877 --> 01:07:16.560

진행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은
학생 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어요.

01:07:16.660 --> 01:07:18.954

교외 활동이지만 적힐 수 있습니다.

01:07:19.054 --> 01:07:24.856

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
도서관이 교육청 소속이잖아요?

01:07:24.956 --> 01:07:28.730

특히 서울에 있는 모든
도서관은 교육청 소속입니다.

01:07:28.830 --> 01:07:32.558

이런 경우에는 교육청
산하기관이기 때문에

01:07:32.658 --> 01:07:35.298

도서관의 활동 역시
학생부에 기재가 돼요.

01:07:35.398 --> 01:07:38.314

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
경우에는 교육청이라기보다는

01:07:38.414 --> 01:07:41.946

시도 자치단체에 속해있는
경우가 많기 때문에,

01:07:42.046 --> 01:07:46.553

일단 교외 활동 자체 내용이
학생부에 기재가 되는지의 여부는

01:07:46.653 --> 01:07:49.141

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.

01:07:49.241 --> 01:07:54.536

확인해보고 이 내용 자체가 학생부에
기재가 가능한 활동이라면,

01:07:54.636 --> 01:07:57.547

학교 내에서 맞볼 수 없는
질 높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

01:07:57.647 --> 01:07:59.824

굉장히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.

01:07:59.924 --> 01:08:01.944

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?

01:08:02.044 --> 01:08:03.961

교내 활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.

01:08:04.061 --> 01:08:08.713

아무리 질 높고 학생부 기재가
가능한 교외 활동이라도,

01:08:08.813 --> 01:08:11.213

이를 뒷받침하는 교내 활동이 없으면

01:08:11.313 --> 01:08:16.096

교외 활동에 대해서 외부의
시선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.

01:08:16.196 --> 01:08:20.112

그래서 학종이라는 전형 자체의
기본 베이스는 교내 활동입니다.

01:08:20.212 --> 01:08:24.223

교내 활동 위에
학생부에 기재가 되거나

01:08:24.323 --> 01:08:27.975

교내 활동을 좀 더 촉진 할 수
있는 교외 활동이 없어지게 되면,

01:08:28.075 --> 01:08:33.273

좀 더 맛있고 굉장히 보기 좋은
학생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.

01:08:33.373 --> 01:08:35.786

이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.

01:08:35.886 --> 01:08:37.598

진로 활동입니다, 포인트예요.

01:08:37.698 --> 01:08:40.698

일단 학년이 올라갈수록
그 진로 활동의 내용은

01:08:40.798 --> 01:08:42.856

구체화를 떠는 게 좋습니다.

01:08:42.956 --> 01:08:46.413

진로의 변경은
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.

01:08:46.513 --> 01:08:48.320

하지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.

01:08:48.420 --> 01:08:52.253

그리고 학교가 아닌 내가 중심이
된 진로 활동을 하셔야 돼요.

01:08:52.353 --> 01:08:55.943

그러기 위해서는 어떤
활동을 참여하기 전에

01:08:56.043 --> 01:08:59.519

정말로 생각이 많아야 되고 계획을
철저하게 짜셔야 됩니다.

01:08:59.619 --> 01:09:02.030

그리고 교외 활동 굉장히
우수한 게 많습니다.

01:09:02.130 --> 01:09:06.440

특히 교육청에서 주관하거나 도서관
주관인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,

01:09:06.540 --> 01:09:08.938

만약에 이 내용이
학생부에 기재가 되면

01:09:09.038 --> 01:09:11.449

프로그램 자체의 질이 높기 때문에,

01:09:11.549 --> 01:09:14.324

여러분의 진로 활동, 혹은
확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

01:09:14.424 --> 01:09:17.162

굉장히 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.

01:09:17.262 --> 01:09:20.595

알아보셔야 됩니다,
굉장히 좋은 활동이 많습니다.

01:09:20.695 --> 01:09:25.222

4강,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
할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

01:09:25.322 --> 01:09:28.419

왜냐하면 학종의 기본
베이스는 교과예요.

01:09:28.519 --> 01:09:32.546

그런데 그 기본 베이스
위에 정말 남들이 봤을 때,

01:09:32.646 --> 01:09:37.695
케이크를 비유하자면 케이크
안에 스펀지 케이크가 있죠.

01:09:37.795 --> 01:09:40.313
스푼지 케이크에
해당되는 거는 교과입니다.

01:09:40.413 --> 01:09:41.462
그게 핵심이에요.

01:09:41.562 --> 01:09:45.281
하지만 그 스푼지 케이크를
먹음직스러운 케이크로 만드는 거는

01:09:45.381 --> 01:09:51.431
그 위에 덮여진 생크림과
얹어지는 과일, 또 시럽입니다.

01:09:51.531 --> 01:09:56.119
이런 생크림, 과일, 시럽의
역할을 하는 게 뭘니까?

01:09:56.219 --> 01:09:58.232
창체 활동이에요.

01:09:58.332 --> 01:10:01.318
이런 활동이 정말 탄탄하고 꾸준함,

01:10:01.418 --> 01:10:04.432
전공과의 연계성이 두드러지면,

01:10:04.532 --> 01:10:07.598
여러분이 깔아놓은 교과가
훨씬 더 힘을 발휘하게 되고

01:10:07.698 --> 01:10:11.837
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학종이라는
전형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.

01:10:11.937 --> 01:10:13.138
이 점 명심해주시고요.

01:10:13.238 --> 01:10:15.475
하나의 창체 활동을
하더라도 계획성 있고

01:10:15.575 --> 01:10:18.943
진정성 있게 하는 모습을
보여주기 바랍니다.

01:10:19.043 --> 01:10:20.334
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.

01:10:20.434 --> 01:10:23.798
마지막 5강에서는 굉장히
화두가 되고 있죠?

01:10:23.898 --> 01:10:26.818

독서에 관해 제가 여러 가지
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.

01:10:26.918 --> 02:42:21.996

수고 많으셨습니다.